김일성동지와 위 대 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 원 당 중 앙 회 フレ 동

제292호 [루계 제24340호] 주체102(2013)년 10월 19일(토요일)

전 군,전 민 선 군 의 단결 하여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

선군령도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여나가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2 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 도를 창조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 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오늘의 총진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토대로 하여 우리 조국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와 번 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더없이 보람찬 투 쟁으로 되고있다.

지금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 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전성기가 펼 쳐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이 락을 누리고 문 명한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희한한 창조물 들이 도처에 일떠서고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억 센 기상과 우리 당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오늘의 번영의 새시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이 얼 마나 거대한것이며 고귀한 재보인가 하는 것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 LICH.»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다.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반세 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세상사람들이 현대 사의 가장 장기적인 전쟁이라고 평하는 치 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기적 을 창조하심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 예롭게 수호하고 우리 혁명의 명맥을 꿋꿋 이 이어놓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선군의 길에서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은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최상의 높 이에 올라서고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 하는 장엄한 대진군이 펼쳐지게 되였다. 반 세기이상 지속되여오던 반목과 불신의 장 벽이 허물어지고 6.15통일시대가 열려 지게 된것도, 시련을 겪고있던 인류자주위 업이 새로운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된것도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은 그 하나 하나가 다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 는 빛나는 업적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보통의 정치가로서는 수십수백년 걸려도

이룩할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 였다. 세계정치사는 아직 위대한 장군님처럼 그렇게 짧은 력사적기간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비상히 다방면적이며 풍부한 내용을 담은 업적을 이룩한 령도자 를 알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령도업적은 그 내용이 풍부할뿐아니라 가장 어렵고 복잡한 력사적과제들을 훌륭 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하 여 더욱더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길에서 쌓아올리신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희세의 정치원로, 창조와 건설의 영재, 조국통일의 구성, 인류자주위업의 탁월한 령도자로 우 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다함 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시였으며 적대국 들의 정치가들도 머리를 숙이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선군

령도업적은 당대에도 위대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빛을 뿌리는 영원한 생명 력을 가진 불멸의 업적이다. 여기에는 혁명 과 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모든 사상 리론적, 전략전술적지침들과 역경을 순경 으로, 화를 복으로 전변시키면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여온 영웅적투쟁전 통,비상히 풍부한 경험이 집대성되여있으 며 보다 큰 승리를 담보하는 강위력한 정 치군사적, 경제과학적재부가 담겨져있다. 이 위대한 혁명업적에 토대하여 주체혁명 의 새로운 100년대 진군길을 다그쳐나 가게 된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더 없는 긍지이며 영광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 밑에 마련하여주신 불멸의 업적과 재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장군님께서 줄기 차게 이어오신 선군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 야 하며 그 길에서 사회주의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안아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과 도리를 다해나가 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에서 제시된 사상리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것,이것 이 오늘 우리 군대와 시대의 요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일심단 결의 나라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령도자와 당, 군대,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의 정으로 뭉치고 동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뜨 거운 사랑으로 한덩어리를 이룬 선군혁명 단결을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업적 이다. 핵무기보다 더 강한 이 혼연일체의 위력은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성과 모든 승 리의 근본원천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앙양기를 맞이 하고있다.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리 혜안의 예지와 세련된 령도밑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생전의 뜻과 념원이 거창 한 현실로 전변되고있다. 전당, 전군,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근본요구이다.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 들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정세가 어 떻게 변하든 오직 당과 수령만을 알고 당 과 수령을 결사용위할 억센 각오로 심장을 불태워야 하며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목숨은 버려도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령도자가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통적인 투쟁기풍을 새로 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더욱 높 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강력한 자 위적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져야 한다. 천하무적의 자위적국방력은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업적중의 업적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자주권수 호의 믿음직한 힘이다.

인민군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정치사상 적, 전략전술적우월성과 군사기술적위력을 더욱 높여나가며 제국주의침략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덤벼들어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 할수 있도록 억세게 준비하여야 한다. 로농 적위군은 일단 유사시에 자기 도, 자기 군, 자기 향토를 튼튼히 지킬수 있도록 전투정 치훈련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군대와 인 민이 서로 돕고 위해주며 조국수호전도, 사 회주의건설도 어깨겯고 함께 해온 군민일 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 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 꾸려주신 강력한 토대에 의거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 ¥. 대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근본목적은 반만 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부흥을 이룩하자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령도밑에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

강국건설을 전면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 는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찾으시며 최첨단돌과전,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시고 지식경제 강국건설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아 주시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선군문화의 본보기들을 창조하여주시였다. 온 나라 그 어디에나 백두의 선군령장의 강행군로고가 어려있고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에도 절세의 애국자의 뜨거운 열과 정이 깃 들어있으며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사 업들에도 장군님의 체취가 스며있다. 경제 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 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는것 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 지 현지지도를 이어가시며 쌓아올리신 부 강조국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경 공업전선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살림집건설 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들이 유족하고 행복 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이미 마련된 자립적토대가 은을 내게 하고 현대화,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 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 키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힘있게 다그치 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의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 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며 교육, 보건, 문 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의 모든 부 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건강하고 문 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념원 이 현실로 꽃피게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전투적과업들을 성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모 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 지,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는 우리의 충정은 말이나 구호로가 아 니라 중요하게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 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매개 부문, 매개 단위 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튼 튼한 토대도 마련해주시였다. 각급 당조직 들과 일군들은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들가 운데서 미진된것들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어 단 한건의 미결건도 없이 끝까지 집 행해나가야 한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판철투쟁에서 기수, 본보기가 되여야 한 다. 령도업적단위들은 우리 당의 성스러운 선군혁명실록을 그대로 체현하고있는 시대 의 증견자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하는 현지지도단위들 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 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조국의 부강번영에 쌓아올리신 장군님의 애국업적이 끝없이 빛을 뿌리고 온 나라에 비약의 불길이 세 차게 타오르게 된다. 령도업적단위의 일군 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발전 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기 단위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감으로써 장군님의 업적 이 길이 빛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방침과 정책적과업들을 결사관철하는 강한 혁명적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제시 하는 로선과 방침, 정책적과업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강성번영의 씨앗들을 잘 가꾸어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게 하며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일을 기어이 실현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철석의 의지이다.

인민군대에서는 당이 준 과업을 즉시접 수, 즉시대책, 즉시집행, 즉시보고하는 체계 가 확고히 서있다.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는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를 즉시에 접수 하고 대책을 세우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어 즉시에 집행하고 보고하는 결사관철 의 기풍을 세워야 한다. 당과 숨결도, 발걸 음도 같이하고 운명도 함께 하려는 사람들 에게는 당정책관철에서 조건타발을 하며 흥정하거나 중도반단하는 현상, 요령주의, 보신주의가 추호도 있을수 없다. 당정책관 철에서 무조건성의 정신, 이것이 기본이 다.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겠다 는 정치적자각이 높으면 어떠한 어려운 일 도 해낼수 있으며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담한 공격전 을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은 겹쌓이

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백두의 기상과 대 담한 공격전으로 완강하게 돌파해나가는 투쟁행로에서 이룩된 불멸의 재부이다.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맞받아나가는 공격전 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자는것이 현시기 우리 당의 의도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공격정신으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우리 혁명대오의 본보기집단이다. 모든 당 원들과 근로자들은 마식령스키장건설과 세포등판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마 다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지시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결사관철해나가는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공격정신, 공격속도에 보폭을 맞추며 진군 또 진군하여야 한다. 순간의 침체와 답보 도 허용하지 말고 모든것을 세계를 압도할 수 있게 창조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각급 당조직들이 맡고있 는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 떻게 하면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잘 받들어모시고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머 리를 써야 한다.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 하고 빛내이는데서 혁명사적관과 혁명 사적교양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 자들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 과 업적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깃들어있는 애국심을 김정일애국주의로 승화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가야 한 다. 이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 을 귀중히 여기고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 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충정이 혁명 실천을 통하여 높이 발현되도록 적극 고 무추동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모든 일군 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 을 빛내이는 길에서는 어려워도 주저앉지 않으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세와 립 장이 흐트러지지 않는 순결한 충정의 인 간, 량심의 인간이 되도록 잘 이끌어주어 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체득시키는 사업을 끊 임없이 심화시켜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 들도 장군님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나가 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 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만년재보로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사삿과 렁도를 하마음하뚜의 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새로운 주체 1 0 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 명력사가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야 할것 이다.

많 이 산 하 여 들 인 민 생 활 향 상 에 이바지하자 적 극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종업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종업 원들의 궐기모임이 18일에 진

행되였다. 박문호 평양시당위원회 비 서. 관계부문, 공장일군들과 종 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공장당위원회 비서 오춘영의 보고에 이어 지배 인 민일홍, 견방종합직장장 박기 영, 과장 림수혁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으 시여 거룩한 현지지도의 자욱 을 새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생산정형과 새 방직설비들의 기술적특성, 제품의 질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직설비들의 고속도화와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 준에서 실현하여 질좋은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 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공장의 후방사업정형에 대하 여서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공장 합숙부지도 몸소 정해주시였으 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 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공장앞 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 시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천생산을 비

롯한 공장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 결의를 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 내이며 질좋은 옷감과 천을 더 많 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 극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공장이 새로운 기술로 장비 된데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 를 짜고들고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수준을 높이며 사회주의증 산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올 해 공장앞에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 들고 기술자대렬을 잘 꾸리며 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제품의 질을 결정적

으로 높임으로써 인민들이 좋 아하는 질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일군들은 절세위인들의 승교한 인민사랑을 가슴깊이 간 직하고 종업원들의 생활조건을 훌륭히 보장하며 후방공급사업을 짜고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에 철저 히 구현하여 온 공장이 《마식 령속도》 창조의 열풍으로 세차 게 끓어번지게 함으로써 천생 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 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 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방직설비의 고속도화와 생산공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량강도토지개간전투에 참가한 돌격대원들 1 000여정보의 새땅을 개간

백압땅에 울려퍼지는 대자연개조의 세찬 동음

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백암군

의 토지개간전투에 떨쳐나선 돌 격대원들이 최근 몇해동안 1 000여정보의 새땅을 개간 하였다. 또한 50정보의 방풍 와 포전도로를 건설하는 성과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지정리사업도 마저 하 여야 합니다.》

이룩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백 암군을 감자생산기지로 꾸릴데 대 하여 수십차례의 교시를 주시고 백암군에 대홍단군과 같은 큰 농 장을 창설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암군 를 개간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 을 현대적인 감자생산기지로 꾸 표를 세우고 로력과 기계화수단 리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군경지면적을 늘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주체 9 9

을 찾으시고 감자농사를 대대적 으로 하자면 백암군의 부침땅개 간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원대한 뜻을 받들고 토지정리지휘부에 림을 조성하고 수십km의 도로 서는 수십대의 불도젤을 량강도 백암군토지개간전투장에 증강 배치하고 자재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토지개간 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수시로 알아보고 도의 각급 당조직들에 서 이 사업을 적극 밀어주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토지정리지휘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가까운 몇해어간 에 1만정보가 훨씬 넘는 토지 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토지개간을 힘있게 내밀었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

지개간전투에 참가하여 로력 적위훈을 세운 량강도려단 돌 격대원들은 몇해전 륜전기재 들을 백암군의 곳곳에 기동전 개하고 만단의 준비를 갖춘데 이어 토지개간전투에 일제히

진입하였다. 돌격대원들은 엄혹한 자연과 의 투쟁을 동반해야 하는 백두 대지에서 나무를 베고 등걸들 을 뽑아버린데 이어 발동소리 높이 땅을 갈아엎고 밭갈이, 원 반써레치기를 힘있게 내밀었 다. 김형직군, 김형권군, 운흥군 대대의 돌격대원들이 자력갱 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 이 발휘하며 자기들이 맡은 수 십정보에 대한 올해전투목표를 남먼저 해제끼는 성과를 이룩 하였다. 돌격대원들은 공사기간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 강도 일제를 쳐부신 항일유격 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백두대지에 대자연개조의 불 지구에 일뗘서고있는 감자농장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토지정 본받아 자체의 수리기지를 꾸 리에 이어 량강도 포태지구토 리고 1 0대의 원반써레를 제 작하여 리용하였다.

올해에 돌격대에서는 500 정보에 대한 개간전투를 힘있게 벌려 년간 토지개간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 망을 열어놓았다.

혜산시와 청진시의 런결농기 계공장들에서는 백무고원지대 에 맞는 수십개의 불도젤삽날과 보습을 생산하여 보내줌으로써 대규모감자산지건설에 떨쳐나 선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 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백암땅을 하루빨 리 어버이장군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굴지의 감자산지로 전변 시킬 열의에 넘쳐 토지개간전 투에서 불굴의 위훈을 펼쳐가 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공

위 대 한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 동력이며 전력생산을 늘이 는것은 오늘 나라의 경제전 반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 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적분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소건설을 완공하였다.

초산청년 2호발전소는 군의 일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희천 속도,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 이 짧은 기간에 일떠세운 자력갱 생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군들은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초산천에 초산청년 1 호발전소를 건설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하천들이 합쳐져 물량이 풍부하고 높은 락차고를 얻을수

있는 유리한 지점인 구룡지구에 초산청년 2 호발전소를 건설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능력있는 일군들로 발전소건설 지휘부가 조직되고 군의 당원들과 청년들로 돌격대가 무어졌다.

발전소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계절에 따르는 구룡천의 물흐름 량과 일기조건을 잘 타산한데 맞 게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발전 초산군에서 초산청년 2 호발 소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었다.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돌격 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 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착공의 첫날부터 결

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

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헌

신적투쟁을 벌렸다. 돌격대원들은 만수천㎡의 토량을 처리하고 굳은 암반을 까내면서 90여일동안에 수 백m의 방수로공사를 끝내는 로력적위훈을 떨치였다.

수백m의 물길굴공사를 맡은 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작업조 건에서도 합리적인 작업방법 을 받아들이고 착암기, 압축기 를 비롯한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150여일 동안에 물길굴을 관통시켜 발 전소건설을 훨씬 앞당길수 있

는 돌파구를 열어제꼈다. 1년 남짓한 사이에 방수로와 물길굴공사를 끝낸 지휘부의 일 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사석언제

쌓기공사에 달라붙었다. 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면서 사석언제중심에 보온가설막을 짓고 추운 겨울기간에도 진흙다 짐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었다. 강승판, 김영남, 백영룡동무를 비롯한 지휘부의 일군들은 기발 하면서도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 들여 많은 세멘트를 절약하면서 수문콩크리트언제를 한달동안에

쌓는 기적과 혁신을 일으켰다. 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발 전소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 으로 힘있게 지원하였다. 지휘 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군 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수십만 m³의 돌과 흙을 날라 8년동안 쌓아야 할 사석언제를 1년 4 개월동안에 일뗘세우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떨치였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사석언제 공사를 끝낸데 이어 발전기실공 사, 인입도로공사, 발전소종업 원들의 살림집건설을 동시에 내 밀면서 자체의 힘으로 발전설비 조립과 전력공급계통공사를 성 과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

을 짜고들었다. 얼마전 초산청년 2 호발전소 에서는 발전설비시운전이 성과 적으로 진행되였다.

특파기자 동세 웅



병

병사들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다고

사랑의 장정은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선군혁명의 기둥인 일당백군대,

군의 신념과 기질로 훈련에서도 사

회주의건설장에서도 무적강군의 본

때를 과시하는 우리의 영용한 병사

위대한 군인가정에서 탄생하시여

병사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걸출한 령도자이신

우리 병사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날은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하고

친근한 어버이사랑을 안고 오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판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병사들에 대

병사들에 대한 사랑, 이는 백두산

조직성, 규률성, 집단주의, 동지애, 전

투적기백, 락판주의로 표현되는 백두산

혁명강군의 위력은 병사들에 대한 사랑

병사들에 대한 사랑은 조국수호의

전초선을 지켜선 총쥔 병사들에게 불

굴의 정신력과 투지를 심어주고 원

자탄보다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하게

병사들에 대한 사랑을 떠나 우리

군대의 존재와 강화발전에 대하여,

철통같은 단결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

선군혁명령도의 첫 기슭에서부터 병

사들에 대한 사랑으로 선군조선의 승

리와 영광의 력사를 광휘롭게 수놓아

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선군시대와 더불어 끝없이 이

어가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병사들을 만나실 때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우리 병사들이 늘

보고싶었다고, 병사들을 만나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품어오셨던

그리움의 정을 한껏 터치시는분이

의 절대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하는 무한대한 힘이다.

여 생각할수 없다.

에 마를줄 모르는 원천을 두고있다.

한 열화같은 사랑은 가장 훌륭한 노래

로 시대의 하늘가에 메아리치고있다.

혁명강군의 기초이며 우리 군대의 정

신력, 선군혁명위업의 추진력이다.

들은 얼마나 미덥고 훌륭한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을 초소에 모시는 날이다.

더운 피 펄펄 끓는 백두산혁명강

나의 병사들의 씩씩한 모습을 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면 신심이 생긴다고, 부대들에 나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믿는것은 대포나 로케 하시며 이 나라의 높고 험한 령길들 트를 비롯한 그 어떤 현대식부장장 을 넘고 또 넘으신 어버이장군님, 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위대하고 친근한 어버이사랑을 그 처럼 잊지 못해하는 병사들에게 지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도 있고 극한 사랑을 더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도 있는것입니다.》 원수님께서 계시여 병사들에 대한

조국보위성전에 용약 떨쳐나 귀중 한 청춘시절을 총대와 함께 빛내여 가고있는 병사들은 모두가 훌륭한 혁 명가, 조국의 귀중한 보배들이다!

이런 투철한 병사관을 지니시고 병 사들을 찾아가실 때 제일 기뻐하시고 그들의 장한 모습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병사들에 대한 사랑, 여기에 그 어 떤 무장장비에 앞서 사람, 병사들을 절대시하시고 그들에 대한 한없는 믿음과 은정으로 거창한 위업을 이룩 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특출한 무력관이 집대성되여있다.

전군을 매혹과 흠모로 끓어번지게 하는 그이의 위대성은 곧 병사들에 대한 천품적인 사랑이다.

병사들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말 이나 구호로 대신하지 못한다. 오직 불타는 심장, 위대한 헌신으로만

설명되는 끝없이 고결한 세계이다. 멀리에 있건 가까이에 있건 늘 사 랑하는 자식에게로 마음을 달리는것 이 어머니의 본능이다.

그지없이 따사롭고 다심한 어머니 의 정과 열로 방선을 지켜선 사랑하는 병사들을 위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최고사령관이라는 군직보다 병사 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한전호 를 지켜선 친근한 전우로서의 사명감 을 더 깊이 간직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새해를 맞이한 병사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눈물속에 나날을 보내였을 동무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힘을 내라고 고무해주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우리 원수님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사랑의 장정을 어이 다 노래할수 있

찾으신 날이 명절이면 오늘은 명 절인데 병사들을 잘 먹이라고, 그래야 어버이장군님께서도 마음을 놓으신 다고,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며 그리도 사랑하신 우리 병사들에게 풍 족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 다고 거듭거듭 당부하신

廷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지 만 훈훈한 병사들의 침실을 돌아보실 때마다 군부대시찰의 길에서나 돌아 오신 다음에도 병사들이 더운 곳에서 생활하고 더운 곳에서 밥을 먹게 해 야 한다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늘 귀전에 울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뭐니뭐니 해도 병 사들의 잠자리가 뜨뜻하고 더운 곳에 서 밥을 먹게 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그 언제나 마음속에 자식들을 안 고 사는 어머니에게는 구태여 그 어 뗜 다른 설명이 필요없다.

최전방에 위치한 높은 령들파 험한 산발들을 넘으시여 초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두볼을 눈 물로 적시며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사 랑하는 병사들을 보시며 하신 우리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이 이 나라 천만 어머니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군인들이 최고사령관이 왔다고 눈 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지휘판들이 병사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잘 돌 봐주어 그들이 건강하고 랑만에 넘 쳐 군무생활을 해야 나도 전선시찰 의 길을 걷는 보람이 있을것이다!

바람세찬 산중턱에서 줴기밥으로 점심식사를 하시고 최전방에로의 전선 시찰의 길을 또다시 이어가신 력사의 그날에 남기신 사랑의 말씀이다.

아무리 외진 섬초소라 할지라도 우리 병사들의 잠자리와 식탁, 세목장, 일일 창고 등은 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있다. 초도방어대를 찾으신 날 방어대군 인들은 륙지와 멀리 떨어진 외진 섬 에서 살고있지만 오직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퍼주어야 한다고 경애하는

병사들 얼마나 목메여 울었던가.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 방어대를 찾으시였을 때에는 치솔을 몸소 만져보시며 이닦기방법도 알려 주시고 병사들이 이몸을 상하지 않게 하라고, 병사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어 섬초소군 인들이 륙지생활을 그리워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따뜻이 이르신 병사들의

원수님께서 뜨겁게 말씀하실 때 우리

자애로운 어버이 우리 원수님,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 대를 또다시 시찰하실 때에는 섬생활을 하는 군인들을 그 어느 단위보다 특별 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 병사들이 섬을 자기들의 정든 고향집처럼 생각하 게 하여야 한다고, 잠자리가 뜨뜻하고 식탁이 푸짐해야 병사들이 초소를 자기 들의 정든 고향집처럼 생각하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 적진까지의 거리가 너무도 가까운 위 험천만한 곳이여서 절대로 그곳에만은 가실수 없다고 안타까이 아뢰이는 일군 들에게 병사들을 만나지 않으면 발길이 떨어질것 같지 않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 병사들이 있는 곳이면 꼭 가보겠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이 이어 가시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은 이런 감 동깊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수없이 전 하고있다.

병사들을 사랑하라! 이는 강철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좌우명이다.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무장 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는것도 중 요하다.

보다 중요한것은 평화를 수호하는 성전에서 피를 나누고 생사를 같이 할 지휘관들과 병사들을 혁명동지로 굳게 단합시키는것이다.

지금껏 전쟁사가 아는 무력관은 무 기중심론이였다.

하지만 그처럼 국고를 기울여 마련 한 무장장비들, 요란스럽게 자랑하던 무기들이 당과 국가를 지키는데서 아 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게 한 일부 나라들이 남긴 피의 교훈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그 무기들을 다루어야 할 군인대중 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대오로 키우 지 못하고 사랑으로 병사들의 심장을 달구어주지 못할 때 아무리 좋은 무

기도 무용지물이 된다는것이다. 혁명군대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우 월성이며 그 원천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무장대오의 단합이다.

참다운 동지적사랑에 기초한 단합 은 총대의 위력을 백배해준다.

인민군대에서 관병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 전군을 하나의 동지 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이다.

인민군대에서 최고사령관과 병사 는 생사를 같이하는 운명공동체, 귀 중한 혁명동지이다!

사랑으로 뭉친 판병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 이런 특출한 병사중시관점으로 매 병사들의 심장에 동지애의 열, 혈연의 정을 부어주어 총쥔 병사의 사명감을 백배천배로 승화시켜주시는분,지휘 판들이 병사들을 위하여 신발창이 닳 도록 뛰여다니도록 이끌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라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지휘판들 은 병사들을 위해 자기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병사들을 위해 신발 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

지휘관들이 달고있는 령장의 별은 그 어떤 대우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감에 대한 믿음의 표시이다. 그 별의 무제를 모 른다면 지휘판의 자격에 대해 말할수 없다. 지휘관들은 싸움준비를 완성하 고 군인생활문제를 푸는데서 어려운 일이 나선다고 해도 별에 담겨진 당 의 각별한 신임과 믿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고 신발창이 닳 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

군판들을 위하여 병사들이 있는것 이 아니라 병사들을 위하여 군판들 이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지 휘관들은 언제나 병사들을 귀중한 혁 명동지로, 혁명전우로 대하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군인대중의 참된 충 복이 되여야 한다!

병사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는것 은 지휘관들의 본분이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맏형, 맏누이가 될뿐아니라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진정 한 혁명전우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은원수님은 바로 이런분이시다.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 하시였으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병 사들을 위해 헌신하는 지휘판, 병사 들이 맏형, 맏누이처럼 따르는 지휘 판들을 만나실 때가 제일 기쁘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라.

나는 지휘관들에게 전사들을 맡기였 는데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병사 들을 잘 돌보아주는 지휘판들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다. 병사들이 잘 먹고 잘사는것을 볼 때면 최고사령관으로서 부대를 시찰하는 보람을 느낀다!

병사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 는 사업에 적극 기여하고있는 일군들을 만나실 때마다 자신께서 바라시는 진짜 배기일군이라고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 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우리 병사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 나 지극하시였으면 물보라날리며 전 진하는 어뢰정의 지휘소에서 맵짠 해풍을 맞으시며 사랑하는 병사들과 어깨를 겯고 훈련지휘도 하시고

인민들이 삼가 지성을 담아 올린 물 고기를 싣고 병사들을 찾아가시여 료 리방법까지 알려주시였으며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병사들의 심정을 헤아리 시여 병사들 한명한명을 자신의 옆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혁명 일화를 남기시였으라.

이런 위대한 사랑의 전설이 어느 나 라 군건설력사의 갈피에 있었던가.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선시찰 소식이 신문과 방송으로 전해지는 날 이면 이 나라 인민들 우리 원수님께서 꼭 자기 자식들을 만나주신것만 같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것 아니던가.

일부 나라들이 대국의 군사적 《보 호》에 기대를 걸고 《평화》에 도취 되여있을 때, 무기만능론을 제창하며 핵위협공갈에 미쳐날뛸 때 병사들에 대한 류례없는 사랑으로 사회주의수 호전의 기둥, 강성국가건설의 주력군 을 억척으로 다져주시고 원쑤들과의 대결에서 런승의 통장훈을 부르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 못난 병사 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병사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은 천하무적의 일당 백혁명강군의 사상정신적원천이며 바 로 그 류례없는 사랑은 격동의 선군 시대를 진감하는 위대한 원동력이다.

우리의 모든 병사들을 사상의 강 자, 신념과 의지의 강자, 순결한 의리 의 인간으로 키우며 군인대중을 무적 필승의 대오로 강화하는 생명선이다. 움찔거리기만 해봐라. 주체조선, 선군 조선의 명예를 걸고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여 침략자들을 죽탕쳐버릴것이다.

이런 결사의 신념과 투지로 펄펄 나 는 병사들, 최고사령부의 사상과 의지 로 만장약된 무적필승의 대오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을 자양 분으로 하여 사는 우리 병사들이다.

열화같은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 우며 조국보위, 강성국가건설에서 백 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 시하는 훌륭하고 장한 우리 병사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 하자!》는 일편단심의 구호로 자나깨 나 심장을 불태우며 사는 군대, 혁명 의 수뇌부결사용위의 길에서 오늘의 차광수, 김혁, 오중흡이 되려는 열망 이 오늘 우리의 전군에 관통되고있는 고결한 정신세계이다.

이런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절세의 위인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위대한 내 조국의 한치한치를 철옹성

같이 지켜서있기에 백두산대국은 명실 공히 금성철벽이다.

천하제일명장의 백절불굴의 선군 신념과 투지를 체질화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뎌 운 피를 끓이며 성스러운 우리 조국 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뜨거우 가슴에 품고 덥혀주는 백두산혁명강 군앞에서는 그 어떤 《초대국》도 아 무런 맥을 추지 못한다.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날뛰다가 참 패만 당하는 원쑤들의 말로가 이를 실증해준다.

전군에, 온 나라에 차넘치는 병사 들에 대한 사랑의 열풍으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이 도도히 전진하는것이 오늘 우리 조 국의 경이적인 현실이다.

위대한 한평생 늘 사랑하는 병사 들속에 계시면서 영원불멸할 사랑의 력사를 빛내이신 병사들의 영원한 어버이의 숭고한 념원이 찬란히 꽃 피는 눈부신 현실이다.

력사의 반동들이 우리 제도의 《종 말》을 바라며 어리석은 개꿈을 꿀 때 병사들에 대한 사랑의 천만리를 꿋꿋 이 걸으시며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우리의 천하지대본을 철통같이

다져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병사들인 우리의 모든 군인들은 원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위대한 태양의 성지로 빛나는 내 조 국의 한치한치를 지키는 세상에서 제

일 긍지높고 행복한 군인들이다. 인간사랑의 력사를 집대성한 병사들 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판 김정은동지의 사랑을 이 세상 전부로 알 고 불보다 뜨거운 사랑의 품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군사복무의 나날을 빛내이고있는 초병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사들인 우리 병사들이다. 병사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시는 위대한 최고사령판과 자기의 최고사령관을 뜨거운 심장으로 옹위 하는 병사들사이에 맺어진 억척같은 혈연의 관계로 하여 영웅적조선인민 군의 무적필승의 기상이 날로 힘있 게 과시되며 주체의 선군혁명사가 더 욱 광휘롭게 빛난다.

원쑤들이 휘두르는 그 어떤 핵무기 보다 더 위력한 무기,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사이의 위대한 단결의 무기로 전진하는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앞 길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빛난다. 본사기자 량 순

B 화 화 짓

열 렬 한 애 국 자 이 신 리보익녀사의 묘앞에는 조선 리보익녀사의 서거 54돐에 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 대학, 과학, 출판기판, 평양시내 즈음하여 18일 만경대에 있는 었다. 녀사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

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녀사의 묘앞에 놓여있었다.

화환진정에는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 문경덕동지, 최부 일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리보익녀사의 묘에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돌이켜보며 묵상하였다. 화환이 진정되였다.

정

되였다.

묘

【조선중앙통신】

근로단체, 성, 중앙기판, 군사 당. 정권기관.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녀사의 묘에 진정

참가자들은 만경대혁명일가 의 애국,애민,애족의 가풍을 꿋꿋이 이어주시고 조국과 인민 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리보익녀사의 고귀한 생애를

대 한 수 령 김 일 성 동 지 께 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60돐

였다.

태종수책임비서가 기념보고 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42(1953)년 10월 전후복구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그처 럼 바쁘신 속에서도 함경남도 를 찾으시여 도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단체 및 경제기관 일군협의회에 서 하신 연설 등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괴된 공장,기 업소들을 계획적으로 복구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 시키며 농촌경리와 경공업.지 방산업,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도내 인민경제복구발전에서 근본적 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 에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 한 수많은 공장,기업소들이

그는 지난 60년간 당과 수령 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도의 경 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 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고 말하

장진강발전소를 비롯한 대규

산이 늘어나고 교육, 보건, 문화 예술, 체육발전, 인민생활향상 가져왔다.

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소들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이 세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힘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차게 울리고 2.8비날론련합기 게 내밀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이미 마련된 축산과 수산, 과 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올 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현실 과 로작학습을 결 부 시 켜

초 급 당 위 원 회 에 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 하며 끌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

덕성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는 당원들과 탄부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깊이 체득시키 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현실 과 결부시켜 실속있게 진행해 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집 단안에 로작학습열의가 차넘치 도록 하기 위해 당세포, 근로단 체조직별로 매일 아침과 여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계기에 독보사업을 진행하는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진행하 한편 일군들과 선동원들을 잘 준비시켜 로작의 체계와 내용 을 당원들과 탄부들에게 설득

> 이 와 함께 위 대 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해설해 줌으로써 당원들과 탄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력있게 해설하는 사업도 진행

하고있다.

깊이 새겨안게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초급당위원회에 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 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에

였다.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연구발표모임을 통하여 당원들 과 탄부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대 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갈 의지 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로작학습을 통하여 이곳 탄광 의 당원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의 수위 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 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올해 에 더 많은 석탄을 캐낼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로작학습 의 실효는 당면한 석탄생산수 행에서 혁신적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로농통신원 연전행



위대한 수령님께서 철도운수부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철도성혁명사적판에서-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였다.

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태종수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도내 당, 정 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

기념보고회가 15일 함흥대극장 에 걸쳐 당시의 흥남비료공장, 광포오리목장, 함흥의과대학복 구건설장과 장진강발전소, 신포 수산사업소, 함주군의 농촌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를 현지지도하 시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 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 함경남도당, 정권기관, 사회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모수력발전소들과 중소형발전

짧은 기간에 복구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천항, 함주돼지공장 등 시대의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경공업제품, 수산물, 알곡생

등 도안의 전반사업에서 전변을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 자들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 직하게 받들고 백두산절세위인들

빛내이며 《마식령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 하여 말하였다.

전력, 화학, 기계, 채취, 경공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업소,룡성기계련합기업소,단 자립적경제토대의 잠재력을 남 김없이 발양시킬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수, 양어기지 등이 은을 내게 하 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할것 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 와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 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감 한 투쟁을 전개해나감으로써 사 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 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 가자》에서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사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인 선군 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 사회주의전취불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밝은 미래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인미답의 선군 령도과정에 선군혁명사상을 정립체계화

하고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자주위업수

행에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

를 열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 백승 의 기치를 마련하시였다. 선군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 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 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데 대

한 사상이다.

선군사상의 뿌리는 주체사상이다. 선군 사상이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고있다는것 은 그것이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 방법 론적기초로 하고있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선군사상은 주체 사상을 구현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심 화발전된 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완벽하게,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 게 하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이라는데 대 하여 밝혀주시였다. 선군사상에 의하여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담보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선군혁명사상은 혁명의 총대에 의하여 혁명위업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주체의 혁명원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혁명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들에 과학적이고 실천적 인 해답을 준다.

선군혁명사상은 선군혁명원리와 선군 혁명원칙, 선군정치리론을 자기의 구성 체계로 하고있다.

선군혁명원리의 첫째가는 내용을 이루

는것은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이다. 총 대철학은 선군혁명사상의 기초원리이 다. 주체사상에서 출발하고 총대철학에 기초하고있는 선군혁명사상이야말로 우 리 인민군군인들에게 혁명의 기둥, 주력 군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안겨주고 우리 인민군대를 그 어느 계급, 계층이나 사 회적집단에도 비길수 없는 투철한 혁명 성을 지닌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 로 키운 생명수로 되였다. 군대는 당, 국 가, 인민이라는 원리 즉 로동계급의 당 과 사회주의정권, 자주적인민의 운명이 혁명군대에 달려있다는것도 선군혁명원

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선군혁명원칙은 총대, 혁명군대를 앞세 워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방법론을 주는 총대중시의 혁명원칙이다. 선군혁명 원칙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군사 선행의 원칙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군건설에 선 차적힘을 넣어 군대를 당과 수령의 군대

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불패 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 은 선군혁명사상의 가장 중요한 요구로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군대를 중심에 놓고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나가기 위한 혁명력량편성의 과학적인 방 법론을 명시해주고있는 혁명원칙이다. 혁

가야 한다는것은 선군사상에 의하여 밝 혀진 새로운 혁명리론이다. 선군혁명사상의 중요한 구성체계를 이 루는 선군정치리론은 선군혁명의 원리와 원칙을 구현한 혁명령도방식, 정치방식

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

를 강화하며 혁명군대의 주도적역할에 의

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떠밀어나

에 관한 리론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사상 과 리념은 정치를 통하여 실현되며 정치 는 인민대중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흥 망성쇠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선군정치리론은 선군의 혁명원리와 원 칙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해나가는 혁명령도 방식, 정치방식이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 는가 하는것을 밝혀준다. 선군혁명사상 은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정치이며 사 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는 정치리 론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됨으로 써 인류정치사와 사회주의정치사에서 근 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사회 주의리념과 원칙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 하다. 는 만능의 보검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은 투철 한 반제자주적립장과 숭고한 애국, 애 족, 애민의 정신으로 일관되고 철의 신 념과 의지에 기초한 혁명적인 사상리론 이다. 선군이라는 새로운 시대어자체가 장기간에 걸친 제국주의렬강과의 첨예한 대결상태에서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미 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모든것을 우 리 인민,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 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신 김정일동지 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 담대한 배 짱에 의해 생겨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령도 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 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고 선 군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마련될수 있었 으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 서 런전련승의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우리 조국이 불패 의 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르고 이 땅우에 다계단으로 변 이 나는 휘황한 비약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것은 불면불휴의 선군장정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 명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 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는 길 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후

손만대의 번영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인 선군사상 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당의 선군령도따 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려 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

리 강 철

우리 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 힘있게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이룩하리 위 대 한

각지 당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우리 당의 위대한 력사를 깊이 체득시키 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리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전통교 양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 그 들이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 를 똑똑히 알고 주체의 혁명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견 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도록 학습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 들에게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와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시 키고있다.

중구역당위원회를 비롯한 평 양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 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내용으로 한 도록해 설모임을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 로자들이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 를 잘 알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 도록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 들이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 은 대홍단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량강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적 극 벌어지고있다. 대홍단군당위 원회에서는 농장초급당조직들 에서 감자캐기로 들끓는 실정에 맞게 이동도록해설강의를 활발 히 벌려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이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와 빛 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하고 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이 깃든 력사의 땅을 더욱 활짝 꽃피워 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

리도록 하고있다. 함경북도와 평안남도안의 당 조직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 학습과정을 통하 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 C》에서 뿌리내린 우리 당의 불멸의 력사에 대하여 깊이 체 득하도록 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 불어》 제1권에 수록된 《라 도제국주의동맹》에 대한 내 용을 독보, 연구발표모임 등 여 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원들 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신천군당위원회를 비롯한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선동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에 대한 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가 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장들에 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와 빛나 는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 였는가를 널리 해설선전하도록

동창군당위원회를 비롯한 평안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 대 한 학습을 단위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 직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이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에 대 하여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학습 은 황해북도와 강원도안의 당조 직들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 다. 이곳 당조직들에서는 회고록 학습과정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 로자들이 항일혁명투쟁의 가장 엄혹하고 준엄하였던 나날 에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록 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과정 을 통하여 우리 당의 깊고도 억 센 력사적뿌리에 대하여, 그 뿌 리에서 자라난 우리 당의 빛나 는 혁명전통에 대하여 깊이 체 득하도록 하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 회를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당조 직들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조선로동당은 영광스 리운 ⟨ㄹ. ㄸ⟩의 전통을 계 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 Ch》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당 세포별로 조직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 담겨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에 대하여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만포시당위원회를 비롯한 자강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어버이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 든 . ㄷ》에서 뿌리내린 우리 당이 얼마나 위대한 당인가 하 위대성에 대하여 더 깊이 알도 는것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깊

이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남포시안의 당조직들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깊고도 억센 력사적 뿌리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에 대하여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우리 당 의 력사적뿌리와 빛나는 혁명 전통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 양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 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랜 력사적뿌리와 빛나는 혁명전통 을 가지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혁명하는 끝없는 긍 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을 불태 우게 되였다.

그리고 이 크나큰 긍지와 자 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모신 위대한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 하게 받들어 주체의 선군혁명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올 드높은 결의로 가슴끓이며 《마식령속도》 창조를 위한 투 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얼마전 전국도대항체육경기

평양체육판을 나서던 나는

《동지!》하고 찾는 소리에 걸

음을 멈추었다. 뒤돌아보니 생

면부지의 사람이였다. 평양에

처음 오다나니 길을 몰라서 그

런다는 그에게 통일거리

로 가는 길을 대주고 돌

를 보러 갔던 날 밤이였다.

선 들어선 오늘 《티. C》성원들의 한별옹위 정신을 이어받아 정신 로 기 병도자의 사상과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 는것은 전당 당세포들 의 한결같은 신념이며

> 경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의지이다.

《당세포들은 모든 당원들이 차광수, 김 혁동지들을 비롯한 우 선 리 당의 1세대 당원 들처럼 투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며 일심단 결의 대를 꿋꿋이 이 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 려야 합니다.》

여기에 평양화력발전 련합기업소안의 당세포 들의 전투력을 보여주는 이런 실례가 있다. 얼마전 타빈직장에서 있은 일이다.

련합기업소적인 작전 에 따라 겨울철 전력생 산의 정상화를 위하여 직장에서 진행할 단계별보수과제를 두고 생각하는 초급당비서 김성철, 부비서 박영남동무들의 마음은

많이 찾게 되는 부름-동지! 하다면 언제부터 이 땅에 동

지라는 부름이 참되게 울리게

되였던가.

사색은 87년전 화전의 언덕 에로 치달아오른다.

각양각색의 운동가들이 형형

- 띨 ||.....

원수님의 시대에 더 높이 울리 고있다.

《분자그대로 백지처럼 깨 끗하고 순결한 새 세대였다. 〈ㄹ. ㄷ〉의 피에는 잡것이

고 그 길에서 생사를 함께 할 뜨

사상과 정으로 뭉친 혁명동지들

-과연 보수작업반들이 그 아

름찬 과제를 제기일에 해낼수

더우기 보수 1 작업반 당세포

병원에 면회갔을 때 보았던

그런데 보수전투가 진행되는

날에 뜻밖에도 당세포비서 고팡

삼동무가 그 몸을 가지고 현장

초급당일군들이 다짜고짜로

병원으로 떠밀었지만 그는 막무

그는 10월의 의의깊은 날들

을 맞이하니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우리 당의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의 열혈투

사들은 모든 당원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참뜻이 더 깊

이 새겨져 이렇게 달려나왔다고

선군시대 《건설동지사》의 위

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고 하면

서 그 전투에 자기도 서게 해달

병원침상을 뛰쳐나와 불사신

같이 보수전투를 벌려가는 당세

포비서의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모습은 당원들의 심장에 불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를 우리는

우리 당의 억센 뿌리가 되였

고 일심단결의 시원이 되였다.

당의 혁명전통이 여기서부터 마

런되였고 혁명의 조직적골간이

그는 이번 전투에서 당세포가

그의 척추를 촬영한 필림과 의

료일군들의 신중하던 눈빛이 떠

비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

있겠는가.

는중이였다.

올랐다.

에 나타났다.

하는것이였다.

라고 호소하였다.

잘 알고있다.

가내였다.

당세포들의 이런 불같은 투쟁 에 의하여 직장에서는 1단계 보수전투를 사흘, 2 단계 보수 전투를 이틀이나 앞당겨 끝냈으며 마침내 련합기업소적으로 겨울 철에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 는 돌파구를 열어놓게 되였다.

이곳 당세포들만이 아니다. 《마식령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 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 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당세포들 이 분발해나섰다.

당세포비서들이 대고조진군 의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어렵고 힘든 모퉁이에 남보다 어깨를 먼저 들이밀며 당정책관 철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자는것이 전당 당세포비서 들의 한결같은 결심이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당세포사업 과 관련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맹세를 순결한 량심으로 지켜 나가는 당세포비서들에 의해 대고조전투장들에서 성과가 이 룩되고있다.

그 어떤 말이나 구호로가 아니라 불같은 실천투쟁을 통하 여 전당의 당세포들은 선군시대 《건설동지사》 들로 더욱 억세 게 준비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루 쟁

《E. □》에 뿌리를 둔 우리 당의 력사는 혁명하는 당, 투쟁 하는 당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 시된 성스러운 력사이다.

투쟁하는 당인 우리 당의 위력 은 오늘 최후승리를 위한 대고조 진군에서도 높이 떨쳐지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 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오늘 의 대고조실천으로 더욱 빛내여

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당은 주체사 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 설되고 활동하는 당,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석같 이 통일단결된 당, 인민대중 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그 들의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위 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혁 명적당이다. »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 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힘있 는 정치사업으로 뜻깊은 올해의 승리적결속을 위한 대고조진군 을 다그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당위원 회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전투현장들에 달려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ㅌ.ㄷ》의 전통 을 이어받은 우리 당의 위력에 대한 해설선전을 실천과 결부시 켜 진행하는 당일군들의 격동적

인 정치사업은 로동계급의 가슴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자기의 일터, 자기의 초소를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제일선 참호로 여기고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무조건 수행하자. 실천으로 당을 받들자!

로천분광산, 운광사업소와 공 무분공장, 정머리분공장을 비롯 한 련합기업소안의 당조직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하여 지금 새로운 기적창조의 불길이 철산 봉에 활활 타오르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 회에서는 투쟁하는 당인 우리 당의 성격에 맞게 당사업을 혁 신적으로 해나감으로써 련합기 업소안의 모든 당조직들이 대고 조전투를 추동하는데서 비상한 전투력을 떨치도록 하고있다.

특히 모든 당세포들을 전투력 이 강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청년선재직 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안의 당 조직들의 역할이 높아지는 속에 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날 에날마다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리원시와 연탄군의 당조직들 에서는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 하여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 장들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있 다. 특히 여러 단위의 기동예술 선동대원들을 발동하여 당에 대 한 위대성교양을 실감있게 하면 서 당원들과 농장원들, 지원자들 이 당면한 영농전투실적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수안군당위원회와 연산군당

위원회의 일군들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장에 나가 농장원 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 당의 위력으로 하여 펼쳐지는 내 조 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해설도 하고 당의 뜻을 받들어 앞장에서 돌격전을 벌려나가는 당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자료들 도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의 정신 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락랑구역당위원회에서도 가을 걷이실적을 올리고있는 금대리 를 비롯한 모범적인 단위들을 적 극 내세우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 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내 조국의 그 어디를 가나 당 조직들의 전투력이 높이 떨쳐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 속도》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 퍼가는 각지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은 대고조전역에 서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 조하도록 하고있다. -투쟁하는 당의 위력을 온 세 상에 떨치며 최후승리를 앞당겨

고있다.

모시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 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장철 범

아서려는데 그의 목소리 가 다시 울렸다. 《고맙습니다. 동지!》 그때에는 례사롭게 받았던 인 사말이였다.하지만 동지라고 부르던 그의 목소리가 왜서인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아마도 학창시절을 마친 사람이 라면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보다 더 많이 찾게 되는 부름일것이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보다 더

색색의 주의주장으로 조선독립을 부르짖던 그때 누구의 눈길도 끌 지 않고 조용히 고고성을 울린 《E. L》, 하지만 그것은 이 땅 의 력사를 새롭게 개척할 운명을 안고 태여난 참다운 조선공산주

의자들의 첫 혁명조직이였다.

《E, L》가 자기의 사명을

일제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 졌던 그때 과연 무엇이 《ㅌ. ㄷ》로 하여금 자기의 력사적사 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섞여있지 않았다.》 잡것이 섞여있지 않는 피, 이

것이였다. 그것은 조선혁명의 길을 새롭 게 밝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거운 정이였다. 사상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 을 두고 동지라고 한다.결국 《E. L》가 력사의 모진 광풍 속에서 조선혁명이라는 억센 거 목을 키워낼수 있은것은 하나의

의 조직이기때문이였다. 이때부터였다. 사대와 파벌로 얼룩져 시상가는 많아도 시상을 함

어 차디찼던 이 땅에 동지라는 신 성한 부름이 울리기 시작한것은. 동지, 이것은 혁명의 길에서 사상과 뜻을 함께 하는 언약이고 맹세이다. 그 언약, 그 맹세를 목

동가는 많아도 따뜻한 정을 줄 곳

이 없고 그 정을 받아주는 곳이 없

숨보다 귀중히 간직한 하나의 동지가 열,열이 백, 백이 수천수만이 된 동지의 대부대가 있어

이 땅에 조국해방의 새 봄이 오고 전승의 축포가 올랐으 며 사회주의보루가 솟아올랐다. 동지라는 이 부름은 경애하는

잊을수 없다.

피눈물의 12월을 보내고 새 해를 맞은 일군들에게 우리는 1 2월의 눈속에서 피눈물을 흘 리며 어버이장군님을 바래워드 린 전우들입니다. 함께 눈을 맞 으며 함께 장군님을 바래워드린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다같이 전 우들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 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전우는 생사를 판가름하는 결전 장에서 동지들사이에 오가는 부름 이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온 사회가 그이 의 전우로, 동지로 삶을 빛내이며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이런 나라 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동지라는 부름을 두고 우리는

동지, 이 신성한 부름으로 시 작되고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와 더불어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 리를 기어이 이룩할것이다.

오늘 다시한번 확신한다.

본사기자 림 현 숙

평양체육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보고회가 18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리영수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종무체 육상, 관계부문, 평양체육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 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체육관 종 업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주체체육발전의 일대 전성기가 열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창립 40돐을 맞는 평양체육관의 전체 종업 원들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축하문은 백두산절세위인들 의 거룩한 자욱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평양체육관은 우리 당의 인민 사랑의 기념비라고 강조하 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 62(1973)년 4월 3일 평양체육판을 창립해주시고 여 러차례 현지에 나오시여 강령적 인 가르치심을 주시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이 맡겨준 혁명임 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는 대중체육활동과 문화정서생 활에 절실히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체육문화오락기재들

평양체육관창립 40돐 기념 을 보내주시고 그 리용과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 적으로 가르쳐주시여 평양체육 관이 인민의 체육관으로 빛을 뿌리도록 하여주시였다고 강조 하였다.

> 체육사업을 나라의 영예와 민 족의 존엄을 떨치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체육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체육관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개건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까지 보내주신데 대하 여 지적하였다.

> 평양체육관은 창립후 지난 40년간 나라의 체육발전과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체육문 화기지로, 당과 국가의 중요행 사들을 보장하는 대정치축전 장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체육관종업원들과 일군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비롯하여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회 의들과 광명성절기념 대공연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 다》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성과 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당과 수령 의 위대성,일심단결된 주체조 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는데 공 되였다. 헌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평양체육관 종업원 들과 일군들이 투철한 수령관 과 고결한 애국심을 지니고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당 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체육관 지배인 전영근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리성철, 과장 로인환, 작업반장 한종호가 토론하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체육판 이 지난 40년간 충정의 력사를 빛내이며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언급하고 당중 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 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굳은 결 의를 표명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철저 히 관철하여 국가적인 정치행사 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나라 의 체육발전과 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개건된 체육관의 설비와 기재들을 알뜰 히 관리하고 더욱 현대화하며 관리운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

【조선중앙통신】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수업을 발전시켜 과일 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당의 크나큰 사랑속에 천지 개벽된 고산과수농장에서 과 일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이고 있다.

지 력 높 이 기 를

일찌기 이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일의 정 보당 수확고를 높이자면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여 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간平히 가르쳐주 지배인 최종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을 자자구구 새겨보며 이런 결 심을 더욱 굳히였다. -과수밭을 기름지게 걸구어 야 더 많은 과일이 주렁진다.

사실 농장에서는 토지정리로 생땅이 드러나 과수밭을 걸구는 것이 과일생산을 늘이기 위한 필수적인 문제로 나섰다. 더우기 과일나무는 농작물과 달리 여러해동안 한자리에서

영양물질을 빨아들이기때문에

과일밭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

여 영양원소들을 보충해주어야 과일생산을 계속 높여나갈수 있 었다. 일군들은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울수 있다는 신심을 안 고 토지정리한 과수원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조직전개하였다. 우선 3년에 한번씩 호원별토 고 말씀하시였다.

고 산 과 수 농 장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도 갖가지 과일들을 많 이 생산하여 군안의 근로자들 에게 공급하였을뿐아니라 인민 군군인들에게도 보내주었다. 이곳 일군들이 찾은 과일증산 의 열쇠는 무엇인가.

첫 자 리 에 놓고 양분석을 진행하고 정확한 진단

과 처방을 내린 후 필요한 기술

적대책을 세웠다. 특히 어린 과일나무가 있는 밭에는 정보당 3 Ot, 열매가 달 리는 과일나무밭에는 정보당 6 Ot이상의 질좋은 유기질비료 를 실어내는 체계를 세웠다. 이 때 중시한것은 유기질비료주기 를 10월중에 무조건 끝내도록 한것이였다. 그래야 다음해에

꽃눈분화률을 높여 과일생산량 을 늘일수 있었다. 농장에서 질소, 린, 카리 등의 영양성분이 들어있는 유기광물 질비료생산기지를 꾸려놓고 효 과있게 리용하고있는것도 좋은

경험이다. 만일 과일나무에 질소가 모자 라면 파일이 제대로 크지 못하 고 추위견딜성이 약해진다. 또

과 학 화 수 준 을

지난 6월 이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일생 산을 획기적으로 늘이자면 약뿌 리기를 비롯한 과일나무비배판 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한다

군 들 의 린이 모자라면 꽃눈이 적게 생 겨 열매맺이가 잘 안되며 과일

의 단맛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과일나무에는 여러 가지 비료를 잘 조절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였다. 여기로부터 농장에서는 석회

로를 건설하고 년중 만가동시켜 쓰고도 남을 소석회를 생산하여 리용하였고 진거름, 물거름 등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과수원에 내였다. 또한 생물활성퇴비와 린세균비료도 생산리용하였다. 올해 여름철에만도 농장에서

는 근 1만t에 달하는 부식토를

확보한것은 물론 다음해 흙보산

비료원료로 쓸 2만여t의 풀을 베여들였다. 농장에서는 질좋은 부식토에 소석회와 진거름을 섞어 생산한 흙보산비료를 정보당 5t이상씩 실어내는 사업을 해마다 진행하 였다. 결과 토지정리한 과수원

의 지력이 높아졌다. 영광의 청춘과원을 가꾸어가 는 이곳 근로자들의 주인된 자 각과 드높은 열정에 떠받들려 토지정리한 과수원에서 부식함 량이 높아진 결과는 과일생산성 과로 나타났다.

부 단 히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거듭 새겨보는 과정 에 과일농사의 과학화수준이자 곧 과일생산성과라는것을 확신 하게 되였다.

그렇다면 농장의 실정에서 어

사업에서 뗯게 해야 과일농사의 과학화수

준을 더 높일수 있겠는가. 이 대답을 찾기 위해 그들은 깊이 사색하면서도 많은 사람들 과 무릎을 마주하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 과정에 몇가지 방도를 찾 아내였다.

이곳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병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을 철저히 세우는것이였다. 과일나무의 병해충피해를 막는것은 과일 정보당 수확고 는 물론 품질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영농작업이였다. 더우기 새 품종의 과일나무들 에 대한 과학적인 병해충피해

막이대책을 떠나서는 과일농사

에서 응당한 결실을 기대할수 없었다. 이렇게 문제를 본 일군들은 과일나무의 병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새 작전안을 무르익히였 다. 얼마후 일군들의 협의회에 제기된 대책안은 모두의 지지를

받았고 실천에 옮겨졌다. 우선 모든 분장, 작업반들에 서 해당 부문 연구사들의 방조 밑에 나노살균제를 도입하여 병 해충피해를 막으면서 정보당 과 일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 결과는 좋았다. 이 나노살균제로 병해충피해 를 막을 때의 효과는 종전의 농 약과 맞먹으면서도 사용량은 수 십분의 1밖에 안되였다.그리

하여 물동량이 훨씬 적어져 과

수원으로 실어내는데 드는 로력 을 절약할수 있었다. 농장에서 는 올해 과일농사에 이 나노살 균제를 도입함으로써 지난해보 다 수십배의 값비싼 농약을 절 약할수 있었다.

이뿐이 아니였다.해당 부문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천연향살충제를 받아들임으로 써 병해충피해를 막은것은 물론 무공해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사 업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여러가지 대용농약을 리용하

고있는것도 주목할만 한 일이 였다. 농장에서는 농부산물을 가지 고 성장촉진뿐아니라 살균,살 축까지 할수 있는 건류액을 **자**

체로 만들어 리용하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계면활성 제를 리용한 식물성농약을 적극 받아들여 농약의 효과성을 높이 고 단위당 사용원가를 줄이

였다. 이들이 서로의 지혜를 합쳐 만든 식물성농약도 로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살충,살균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좋은 대용농약 이였다.

이밖에도 농장에서는 약뿌리 기작업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등 과일나무비배관리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 하였다.

모든 과수농장일군들이 이들 처럼 일한다면 과일증산으로 인 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황연옥

께 할 동지가 없어 눈물젖던 이 땅 에 동지라는 부름이 참답게 울리 《ㄹ. ㄷ》의 전통을 이어 위대한 당의 령도를 끝 까지 받들어갈 결의에 넘쳐있다. 기 시작한것은. 혁명을 한다는 운 - 당 창 건 기 념 탑 에 서 본사기자 찍음

교육자살림집에 새 집 들 이 풍

축복한다, 룡납산의 교육자들을

사회주의문명국을 향해 비약 게 추동하고있는 믿음직한 인재 자들속에는 20대의 애젊은 의 나래를 활짝 펼친 내 조국땅 에 또 하나의 행복의 선경이 꽃

펴났다. 수도 평양의 룡흥네거리에 솟아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되

였다. 룡흥네거리가 생겨 요즘처럼 기쁨과 환희로 련일 들썩거려보

기는 처음일것이다. 이사짐을 실은 자동차들이 줄 지어 이 거리로 들어서는 가운

데 기쁨의 춤바다가 밤새도록 펼쳐졌다.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과 이 주변 마을사람들은 물론 텔레비

죤화면과 신문을 통하여 룡남산 의 교육자들의 새집들이소식에 접하고 달려온 각계층 근로자들 로 하여 살림집주변은 매일같이 사람바다를 이루었다.

스승의 새집들이를 축하하여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들도 그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룡흥네거리에 꽃핀 새집들이 경사가 어찌하여 이렇듯 온 나라의 관심사, 온 나라 인민의 경사로 되고있는것인가.

한생을 후대교육을 위해 밑거 름마냥 묵묵히 바쳐가는 교육자 들의 애국적헌신성을 뗘나 우주 로 치닫는 우리 조국의 막강한 국력과 나라의 과학발전을 힘있

령 도 자 상하는것만 같았다. 어디선가 위 대 하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싱그러운 풀냄새, 꽃향기가 풍 같이 지적하시였다. 겨와 한걸음 더 짚으니 이번에 《우리 당은 사랑과 믿음의 는 또 새 품종의 잔디들이며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진정 한 어머니당이다. »

2현관 8층 2호살림집 주인인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강좌장 한광룡동무가 스스럼없이 터치 는 말이 무척 우리의 흥미를 끌 었다.

《우리에게 는 입사증없이 입사한 또 하나 의 집이 있답 니다.》

입사증없이 입사한 집이란 도대체 어떤 집일가?

이런 의문을 안은채 우리는 그를 따라 승강기에 올랐다. 3 0층.

바로 여기에 그 특색있는 집이 자리잡고있었다.

복도에 여러개의 입구가 나있어 안으로 들어가보았다.

드넓은 공간에 장기와 윷놀이 등 각종 오락은 물론 학습을 할수 있게 의자를 비롯한 여러 시설 들이 곳곳에 갖추어져있는것이 꼭 야외공원에 나선듯 한 기분 이였다.

벽에는 또 코끼리와 사슴을 비롯한 여러 동물들의 륜곽만을 살려 부각한 그림들이 그려져있 어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을 감

들의 대오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보이지 않는 뿌리와도 같은 그 고결한 삶을 우리 당은 온 세상이 부러웁도록 빛내여주고 내세워주었다.

한생을 당을 따라 곧바로 가 라고 가르쳐주던 학창시절 선생 님들의 그 목소리, 그 수고를 잊 지 않고 사는 수많은 제자들의 소원을 우리 당이 풀어주었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은 이렇 게 마음속으로 웨치고 또 웨치 는것이다. -후대교육을 나라의 흥망성

쇠를 좌우하는 국사중의 국사로 보시고 교육자들을 애국자들로 내세워주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같으신분은 세상 에 없습니다!

위 대 한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우리 나라 대학들의 모체이며 혁명 인재 양성의 중심기지입 LICE.»

온 나라 인민의 축복과 커다 란 관심속에 새 집에 이사짐을 푼 주인공들의 기쁨과 격정은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 막 가고있다.

어머니당이 안겨준 궁궐같은 새 집에 입사한 룡남산의 교육

아름다운 꽃들이 눈앞에 밟혀

《바로 여기가 김일성종합

대학 교육자살림집에만 있는

궁궐같이 넓고 희한한 집을

지어준것만도 그 고마움을 표현

할길 없는데 나라에서는 이렇

게 우리 교육자들과 가족들이

문화정서생활의 랑만을 더욱

풍만하게 꽃피울수 있도록 아빠

트앞에도 공원, 아빠트안에도

이런 훌륭한 휴식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구름우에 자리잡은

이 휴식터 또한 우리들모두의

광룡강좌장이 하는 말이였다.

베란다에 나서는 우리에게 한

그 말이 우리에게 준 충격은

생각해보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은 근로하는 인민모두에게 살림

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데서도

다른 나라들에서는 집값이 너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실내휴식터입니다.

필

집입니다.》

구름우의 집,

참으로 컸다.

교원도 있고 새집들이경사를 축하하여주시려고 준공식장에 나오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린 전도양양한 3 0대의 교원도 있으며 수많 은 박사, 박사후비들을 키워낸 5 0대의 교육자, 나이 8 0살

사람들이여, 은정넘친 금방석 을 실지 눈으로 보시려거든 여기 4 4 층, 3 6 층으로 된 룡흥네거 리의 초고층살림집에 와보시라. 매 세대당 면적이 200여㎡

에 달한다.

을 바라보는 원사, 교수, 박사도

넓디넓은 방만 하여도 공동살 림방, 부모방, 자식방, 서재, 부 부방과 같이 다섯칸이나 되고 거 기에 부엌과 창고, 복도까지 있 어 어느 방부터 먼저 들어갔다 가 어디로 나와야 할지 한동안 어리벙벙해진다고, 아마 집주인 이 술래가 되여 숨박곡질을 한다 해도 숨은 사람을 쉽게 찾지 못할

거라고 누구나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아보 시며 마음에 든다고 평가하신 2현판 3층 1호살림집처럼 모든 살림집들의 공동살림방의 입구가 완만한 아치형으로, 2 개의 기둥으로 장식되여있어 이름난 호텔내부를 련상케 하다.

텔레비죤수상기탁이며 쏘파,

되였겠는가.

무도 엄청나게 비싸 이런 호화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주택을 사려면 상상도 못할 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액의 돈을 들여야 한다. 오죽했 을 찾았을 때 우리가 제일먼저 으면 《내 집 마련 평생소원》 들린 집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라는 말이 하나의 류행어처럼 몸소 다녀가신 집이였다. 반겨맞아주는 나이지숙하고

우리는 놀랐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창전 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룡흥네 거리의 살림집들과 같은 호화주 택들을 천만금을 들여가며 인민

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준다. 그것만도 둘도 없는 복인데 이렇게 다른 나 라 같 으 면

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내세 한층한층이 다 워주어야 하며 그들이 높은 엄청난 돈으로 계산될 그런 긍지감과 열의를 가지고 과학 초고층살림집의 두개 층을 통채 연구사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로 내여 여러 세대의 살림집을 지을 자리에 휴식터를 마련해주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나라 에서만 꽃필수 있는 사회주의복 이 아닌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의 류다른 보금자리-실내휴식터. 그것은 정녕 인민을 위한 일, 우리의 교육자들을 위해서라면 수지타산을 앞세우지 않고 땅우 에는 궁궐같은 집을, 구름우에 는 희한한 휴식터까지 지어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한량없는 은정 을 비껴안은 거울로 우리 가슴에

본사기자

책장, 장식장, 책상, 의자, 식탁, 신발장 등 질좋고 보기 좋은 고급 나라에서 교육자들을 위해 마

가구들만 꼽자고 해도 열손가락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사랑의 액정텔레비죤수상

기이며 문양고운 그릇들이 매 집

에 일식으로 갖추어져있고 추운

걱정, 더운 걱정을 모르게 랭온

마음껏 더운물을 쓸수 있게

물가열기가 설치되여있는가 하

면 부엌에는 배풍기가, 식사칸

에는 조명의 세기를 임의로 조

절할수 있는 특색있는 등이, 세

면장에는 샤와며 빨래줄이. 방

들에는 은은한 빛갈의 창가림도

그야말로 못 하나 박을 필요

가 없고 맨몸으로 들어와 생활

할수 있게 모든것이 완전무결하

구름우의 휴식터로 불리우는

교육자살림집내부의 휴식터도

볼만 하지만 베란다에서 주변을

부감하는 멋 또한 이를데 없다.

강이 흐르는데다가 룡남산이 지척

으로 바라보이고 5월 1일경기장

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그야말로 집터도 명당자리

이고 새 집도 최고급호텔수준

인 안팎으로 멋쟁이살림집-

지성미넘치는 로학자를 보고

준공식날 경애하는 원수님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

선생님의 심정이 더욱 남다르겠

《예, 정말 복에 또 복을 받아

서재에 들어선 우리는 훌륭한

책장들에 꽉 들어찬 책들에 시

선을 얹었다. 이 수많은 책들을

벗삼아 끊임없이 조국번영을 위해

탐구의 나래를 펼쳐왔을 김상옥

원사의 모습이 절로 안겨왔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듯

김상옥소장은 책들을 한권한권

꽂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리

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보답의

다고 하는 우리의 이야기에 그는

젖어드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안았습니다.》

꽃다발을 드린 전자재료연구소

소장 김상옥동무였던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사방이 확 트이고 주변에는

풍기가 설치되여있다.

갖추어져있다.

게 구비되여있다.

한눈에 안겨온다.

모자랄 정도이다.

련해준 이 희한한 금방석에서 하루밤이라도 자보고싶다며 집 구경하러 오겠다고 신청들어온 사람만도 100명이 넘는다는 1현관 15층 4호에 입사한 박순 봉동무, 2현판 44층 3호에 사 는 김일남동무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것인가.

당은 바로 이렇게 사회주의문 명국의 상상봉에, 행복의 제일 봉에 다름아닌 룡남산의 교육자 들. 후대교육과 나라의 과학발전 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우리의 선생님들을 먼저 내세워 주었다.

하는 나라는 반드시 흥한다. 비약의 나래를 펼친듯 특색 있는 지붕을 이고 쌍기둥을 이루며 하늘높이 치솟은 룡흥 네거리의 초고층살림집에서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과학기술

강국,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더 높이 솟구칠 백두산대국의 밝고 창창한 앞날을, 교육과 과 학의 힘에 받들려 사회주의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를!

본사기자 박옥경

한생을 떳떳하게!

이런 희한한 보금자 리를 받아안고 온밤 잠 을 이룰수 없었다.이 좋은 집에서 오래 살아 야 하겠다는 70살이 넘은 가시어머니의 말 에 또다시 눈물이 나오 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그리고 결코 나 하나만 의 경사가 아니였다. 우 리 집을 구경하겠다고 친척들과 제자들로부터

연방 전화가 걸려오는 데 벌써 200명이 훨씬 넘는다. 이사짐을 올릴 때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주고 우리가 새 집 받은 이야기를 할 때면 저마다 붙들고 한번 교육을 중시하고 과학을 중시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교육자 들이 더 큰 힘과 용기를 내여 일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다시금 똑똑히 보았고 들 행복의 상상봉에 세워 주시였다.

> 지금 나의 가슴속에는 우리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겠는가 하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다. 나는 지금 하고있는 연구사업

뿐아니라 한생을 떳떳하게 조국 의 부강번영에 보탬이 되는 일 을 더 많이 찾아하는데 있는 지

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다 바쳐 나가겠다.

경제학부 실장 박사, 부교수 김성철

대를 이어가며 궁궐같은 방이 너무 많아 어디 가 어디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꿈아닌 이 놀라운 현실앞에서 어떻게 하면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겠는 지 눈물만 앞선다. 연구사업으로 지방에 나가있는 안해도 이 소식 을 듣고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 다. 우리 집안은 남달리 과학자가 많은 집안이다. 박사도 여러명 된다.모두가 집에 와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과학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계시는 가를 다시금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새로운 결의들을 다졌다.

이렇게 구석구석 우리 원수님 의 다심한 사랑의 손길이 깃든 최상급의 집을 받고보니 정말 내가 한 일이 너무도 보잘것 없는 것 같아 죄스럽기 그지없다.

나는 이 분에 넘치는 영광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 으로 받아안고 더욱 분발해서 후 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나가겠다. 뿐만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원에서 공부하는 딸도 룡남 산을 빛내이는 훌륭한 교육자로 준비시켜 대를 이어가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기어이 보답해나가겠다. 지구환경과학부 강좌장 박사.

부교수 곽일환

조국에 언제나 젊음을

3 0대의 젊은 내가 머리에 흰서리를 얹은 로교수들과 함께 이런 황홀한 살림집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

내가 이 집을 지을 때 흙 한 삽, 모래 한삽을 뜬것이 있는가. 그런데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우리 젊은 교육자들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 을 찍어주시고 이런 크나큰 은정까지 베풀어주시였다.

그래서 나는 눈물속에 길지 않은 생을 돌이켜보았다.

사리원의 평범한 사무원가정 에서 태여난 내가 평양제 1 중학 교에서 공부하도록 해주시고 대 학졸업후에는 교단에도 내세워 주시였으며 어느 한 광산에 대한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값높은 평가도 안겨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오늘은 어버이장군님의 한없이 위대한 그 사랑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벅차게 이어주고계신다.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생토록 자신을 채찍질 하며 달음쳐 살겠다.

하여 내가 맡고있는 교육사업 과 함께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언제나 조국에 젊음 을 안겨주는 참된 교육자, 애국자 가 되겠다.

지질학부 교원 황 광 철

취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

같은 사랑이 력력히 스며있는

안았습니다》

전자재료연구소 소장 김상옥동부의 가정을 찾아서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는 책상앞의 벽에 설치한 자그마한 책장을 가리키며 리용해보니 얼마나 편 리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사실을 들려주었다.

건설중에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현지지도하시던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필요한 책들은 앉은자리에서 꺼내볼수 있게 벽체에 책장을 설치해주도록 세심히 가르쳐주 시였다는것이였다. 이렇듯 살림 집의 하나하나의 세부에 이르기 까지 다심한 친어버이심정으로 일깨워주시고 다듬어주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특히 부엌을 돌아볼 때 펼쳐 놓은 며느리의 자랑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현대적일뿐만아니라 가정주 부들의 편리에 맞게 얼마나 잘 꾸려졌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말대로 가시대와 조리대가 알맞춤한 높이에 설치되여있고 가시대에는 찬물과 함께 더운물

도 어느때나 쓸수 있게 물가열

기와 련결된 수도가 있었으며

가정용가스곤로우에는 배풍기 까지 갖추어져있었다. 며느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가 시집을 때 친부모가 마련 해준것보다 더 훌륭한 그릇들을 보내주시였다고 목메여 이야기 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치형장식이 정말 특색있다고 치하해주신 공동살림방에서 김 상옥소장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꿈만 같습니다.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온갖 사랑을 다 받아안으며 흘러온 저의 한생 은 노래에도 있듯이 축복받은 삶 입니다.》

이렇게 말을 뗸 그는 촬영장

에 나오시여 귀속말로 새집들이 를 하여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도 후대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시던 원수님의 친근한 음성이

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벽에 걸려있는 김정일상계관인 인 로학자의 한생이 어린 로력영웅.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의 증서들…이 모든것도 이렇듯 위대하고 열화같은 태양의 축복

속에 빛나는것이 아닌가.

아직도 귀전에 쟁쟁하다고 격정

초고층살림집의 웅건한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며 확신하였다. 창공높이 솟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그것은 그대로 사상중시, 총

대중시와 함께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을 이룬 과학중시의 빛나는 상징이며 과학기술의 룡마 를 타고 천하제일강국을 향하여 질풍쳐 달려가는 선군조선의 모 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라고.

글 본사기자 김명 훈 사진 본사기자 장성 복



일 성 동 CH 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 표시

총련체육일군대표단 경모의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정을 표시하였다.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8일 총련체육일군대표단이 경모의

대표단성원들은 독창적인 체육 사상을 제시하시고 주체체육발 전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 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 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 선 청 년 친 선 대 표 단 성 원 들

그들은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그대로 이어지고 원수님의 자애

받아안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이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떨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미래사랑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품은 우리 청년들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라고 그들은 절절하게

주체적청년운동의 개척자,

령도자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

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토로하였다.

있는데 대하여 감명깊게 말하였다.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청 다시금 새겨안게 되였다고 그들은 년친선대표단 성원들이 타도 강조하였다. 제국주의동맹결성 87돐에 즈음 하여 17일 숙소에서 《원수님을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믿음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그리는 밤》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서는 청년동맹중앙위 로운 손길을 생명의 젖줄기로

원회 부장 김남철, 창성식료공장 로동자 임은철, 양덕군 은하협동 농장 청년분조장 김옥이 발언하 였다. 발언자들은 자기들의 가슴가 슴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

시며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넘쳐

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발자취 가 력력히 어려있는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조중친선의 강화 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모임 진행

안겨들었다.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 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라 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 동맹의 기발을 펄펄 날리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 에서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결의들을 열렬히 토로하 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르며 노래 《불타는 소원》을 절절하게 불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청년친선 대표단 성원들이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진 제 6 차 아시아경기 회

개막되였던 제6차 동아시아 경기대회가 15일 페막되였다.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 하여 9개 나라와 지역의 2 422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총 24개 종목의 254개 세부 를 하였다. 경기대회기간 륙상, 력기 등의 종목들에서 30여차례 에 걸쳐 대회기록이 갱신되였다.

이번 대회는 종목이 제일 많고 참가선수도 가장 많은 동아시아 경기대회로 되였다.

는 동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로 개칭되여 진행되게 된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 하여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설하였다.

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 인 강석주동지와 보건상 강하국,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 원회 고등교육상 태형철,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근광, 외무성 부상 김형준, 관계부문

팔레스티나대사관 성원이 여기

연회에서는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특명전권대사가

그는 조선로동당창건이 조선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으로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을 현명하게 이끄 시여 영광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생을 기원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

의 위업을 언제나 지지하여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견결 한 립장에 사의를 표하였다. 야씨르 아라파트각하와

4:2로 타승하였다.

즈음하여 68돐에 조선로동당창건

팔레스리나특명전권대사 연회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마련 하여주신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 의 친선관계는 마흐무드 아빠스 대통령각하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관심과 보살피심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 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 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

속에 날로 발전되고있다고 그는

였다. 다음으로 강석주동지가 연설

그는 팔레스티나의 벗들이 해 마다 우리 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 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표시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 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지지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야씨르 아라파 트각하와 함께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

고무로 된다고 말하였다.

를 변함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 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그는 강조하

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동부꾸드스 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창설을 비롯한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들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 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마흐무드 아빠스대통령 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팔레스티나사이의 불패의 친선 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 년)경기소식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 녀)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18일 남자축구 만경봉팀 과 묘향산팀, 기관차팀과 평양 팀, 녀자축구 압록강팀과 월미 도팀, 리명수팀과 평양팀사이의

경기가 있었다. 만경봉팀과 묘향산팀사이의 경기가 진행되였다. 전반전 8분 경에 실점당한 만경봉팀은 신심 을 잃지 않고 경기를

8번선수의 멋있는 머리받기로 실점을 회복하였다. 공격속도를 늦추지 않고 역습을 들이대던 만경봉팀에서는 8번 선수가 현락해준 공을 17번선수가 돌입하며

잘 운영하여 30분경

차넣어 또다시 득점 하였다. 결국 경기는 만경봉팀이 묘향산팀 을 2:1로 이겼다. 치렬한 공방전으 로 이어진 기관차팀

17일에 있은 남자축구경기에 서는 리명수팀이 월미도팀을 1:0으로, 압록강팀이 홰불팀을 2:1로 이겼다.

녀자축구경기에서는 4.25팀 이 봉화산팀을 4:3으로, 묘향산 팀이 갈매기팀을 3:1로, 소백수 팀이 청천강팀을 3:1로 이겼다.

었다. 김 일 성 동 지 께 서 와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함께 마련 하여주시고 꽃피워주신 조중 친선협조관계는 오랜 력사적뿌 리와 전통을 가지고있다고 말하 그들은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

였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 이며 미래의 당당한 주인공들

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가 두 나라 청년 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 였다.

이어 우리 청년중앙예술선전 대와 중국청년예술인들의 예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공연

독창 《아름다운 고향》, 조선 무용 《도라지》를 비롯한 종목 들로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장식 하였다.

모임은 두 나라 청년들의 친선 의 정이 뜨겁게 넘쳐흐르는 속에

【조선중앙통신】

지난 6일 중국의 천진시에서 종목경기들이 진행된 대회에서는 중국이 최종메달획득순위에서 1위

2019년부터 동아시아경기대회

드 하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대사관에서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에 참가하였다.

과 평양팀사이의 경기는 량팀 선수들이 재치있는 련락과 2.3 인결합에 의한 공격전술을 활용

하며 아슬아슬한 득점장면들을 펼쳐보인 속에 2:2로 비겼다. 너자축구경기에서는 집단력

을 발휘하면서 적극적인 공장악 과 측면돌파로 공격속도를 높여 온 압록강팀이 월미도팀을 2:0 으로,리명수팀이 평양팀을

경기는 계속된다.

조중청년친선련환모임 진행 조중청년친선련환모임이 17

일 대련리공대학에서 진행되 였다. 중국을 방문하고있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청년친선대 표단 성원들과 대련리공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 하였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

발 언 자 들 은 위 대 한 대의 녀성독창 《장군님생각》.

의 깊은 관심속에 조중청년들사 이의 친선과 교류가 날로 공고 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

소품공연이 있었다.

을 시작한 청년중앙예술선전 무용 《장고춤》, 기악중주 《젊음 은 급행렬차》, 혼성중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중국노래 《붉은기 펄펄》 등은 참가자들 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중국청년예술인들은 녀성

진행되였다.

얻 을 것 멸 북 남 대 결 로 파

우리의 아량과 성의있는 노력으로 하 여 개선에로 나아가던 북남관계가 또다 악화의 위기에 처하고있다. 모처럼 마련된 북남판계개선의 분위기가 파괴 되고 대결이 격화되고있는것은 전적으 로 북남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려고 미쳐날뛰는 남조선당국의 책동때문이 다. 폭로된바와 같이 남조선집권세력은 우리의 주동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으로 대화와 협상의 물고가 트인것을 두고 파 렴치하게도 《원칙론의 승리》, 《신뢰 프로세스의 결과》라고 떠들면서 대결 정책을 합리화해나섰다. 저들의 대결책 동으로 하여 부득불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자 《반인륜》이니, 《원칙고수》니 하는 악담을 줴쳐대면서 우리와 끝까지 대결 할 기도를 로골화하고있다. 그로 말미암 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에는 매우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이 고있다.

괴뢰들이 북남관계위기의 책임이 마 치 우리에게 있는듯이 사태를 오도하면 《원칙고수》를 떠벌이고있지만 그 것은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파렴치 한 술책이다. 《원칙론》을 떠들며 북남 관계를 칼질하는 괴뢰패당의 동족대결 책동은 그들의 악랄한 반통일대결정책 의 필연적산물이다.

괴뢰보수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신뢰 프로세스》라는것을 《대북정책》으로 내걸고 마치도 저들이 북남관계를 위해 그 무엇을 할듯이 요란하게 광고하였 다. 그러나 그들이 들고나온 《신뢰프로 세스》는 기만적인 《대화》놀음으로 우리의 《변화》와 《핵포기》를 실현 하고 《체제통일》야망을 이룰것을 꾀 하는 본질상의 대결정책이다. 괴뢰들이 저들의 입으로 《신뢰프로세스》가 《북핵을 용납할수 없고 도발과 위협에 대해 보상이 없으며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는것》이라고 떠벌인것을 놓 고도 그의 대결적정체를 알수 있는것이 다. 그것이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 000》과 결코 다를바 없는것으로 서 북남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파국을 몰아오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리치

괴뢰들은 이 악명높은 대결정책을 실 현하는것을 북남판계의 《원칙》으로 내 세우고 우리와의 대화와 협상마당을 또 하나의 대결장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음 으로양으로 책동해왔다. 괴뢰패당이 당 치않은 《격》문제를 들고나와 북남당 국회담을 파탄시킨것은 그 대표적실례 이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앞두었을 때에도 우리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을 어떻게 하나 이어나가기 위해 최대한 의 자제력을 발휘하였지만 괴뢰들은 우 리의 인내성을 악용하면서 대결책동의 도수를 점점 높이였다. 회담장안에서는 강짜를 부리면서 인위적인 장애만을 조 성하였고 회담장밖에서는 외세와 야합 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면서 대 화분위기에 칼질하였다. 그것은 《대화 있는 대결》을 추구하면서 대화의 막뒤 에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날뛰는 피 뢰보수패당의 반통일적인 자세와 립장 을 톡톡히 보여주었다. 조성된 사태는 괴뢰들의 대결정책이 바로 북남관계의 현 위기의 근원이라는 심각한 교훈을 주 고있다.

괴뢰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은 선행자의 뒤를 이어 지난 5년간의 북남관계파국 을 재현하려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 행위이다.

6. 1 5 공동선언발표이후 우리민족끼 리정신에 따라 활력있게 전진하던 북남 관계는 이미 리명박역적패당에 의해 5 년간이나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져있었 다. 폭로된바와 같이 리명박역적패당은 《비핵, 개방, 3 000》 이라는 악명높 은 대결정책을 내걸고 북남사이에 진행 되여오던 대화와 협력사업을 모조리 파 탄시켰으며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 책동에 광란적으로 매달려왔다. 그로 하 여 역적패당이 집권하였던 5년간의 북 남관계는 대화와 협력은 찾아볼수 없고 나중에는 불과 불이 오간 사상 최악의 관계로 력사에 기록되였다. 북남관계파 국으로 얼룩진 그 5년간은 조국통일위 업이 커다란 시련과 난판을 겪은 불행의 5년이였고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가 북침전쟁발발의 위협속에 시달려온 고 통의 5년이였다. 다시는 그러한 불행과 고통을 되풀이할수 없다는것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그로부터 우리는 남조선에서 리명박 역적패당의 집권이 종식되고 새 《정 권》이 출현한 초기부터 북남대결의 악 순환을 끝장내고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 였다. 우리가 6. 1 5 공동선언기념일을 맞으며 북남공동행사를 진행할것을 제 의한것도, 수많은 애로와 난관을 헤치며 개성공업지구사업에서 끝끝내 진전을 이룩한것도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화 해와 협력의 궤도에 올려세우려는 숭고 한 민족애와 통일지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오만하게도 판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우롱하 고 지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까지 감 히 헐뜯는 악담을 줴치면서 대화상대방 을 심히 자극하고 화해, 협력의 분위기 를 서슴없이 망쳐놓았다. 그러고도 제편 에서 《반인륜》이니 뭐니 하는따위의 망발로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려고 파렴 치하게 놀아대고있으며 《원칙론》을 내 들고 북남관계에 계속 빗장을 지르려고 책동하고있다. 그것은 《원칙고수》와 《기다리는 전략》을 떠벌이면서 북남 관계를 대화도 협력도 없는 대결관계로 전락시켰던 리명박역적패당의 반통일죄 악과 결코 다를바 없다. 이것은 매우 심 각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

북남관계의 현 위기사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괴뢰보수패당의 반통 일적인 대결망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 적인 투쟁에 펼쳐나설것을 절박하게 요 구하고있다.

지금 우리 겨레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 기를 살려나가는가 아니면 북남관계파 국의 5년을 되풀이하는가 하는 매우 중 대한 시점에 서있다. 날로 악화되는 북 남관계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살려나가는것은 민족의 지향 이고 조국통일위업의 근본요구이다. 그 러자면 무엇보다도 그에 배치되는 괴뢰 패당의 대화파괴, 북남대결책동을 철저 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대결책동이 우심 한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민족내부에 반통일과 대결을 꾀하는 자들은 비록 한줌도 못되지만 그들이 우 리 겨레와 통일위업에 끼치는 피해와 후 과는 막심하다. 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 을 짓부시지 못한다면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또다시 대결과 전쟁의 악몽속에 시달려야 하며 나라의 통일위업은 커다 란 시련을 겪게 될것이다. 이것은 절대 로 허용될수 없다. 북남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겨레의 안전과 민족의 단합을 위해서도 동족대결에 환장한 괴뢰반역 패당의 무분별한 망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는것 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과제 로 나서고있다.

대결책동을 짓부시는 전민족적인 투 쟁에 북남관계의 전도와 조국통일위업 의 운명이 달려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당파와 소속, 정견과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대결반대투쟁에 한사람같이 떨 쳐나서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들고나가야 할 유일하게 정 당한 지침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이다.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려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줄기찬 투쟁의 결실이 며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구현하는 과정 에 이룩한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과이다. 6. 1 5 공동선언과 1 0. 4 선언에 기초 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 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온 겨 레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 치밑에 굳게 뭉쳐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남조선괴뢰들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 부셔버림으로써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 기를 활짝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 은 정

모략에 미친자들의

요즘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이 뒤골방에서 얼치 기로 꾸며낸 모략자료들을 여기저기에 내돌리며 반공화국악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얼마전 괴뢰 정보원장 남재준은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 의라는데서 그 누구의 《장거리미싸일추진체시 험》이니, 《신형방사포의 전진배치》니 하고 혀 가 돌아가는대로 헛나발을 불어댔다. 나중에는 《무력통일공언》이니 뭐니 하며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드는 악담질까지 하였다. 한편 남재준의 졸개들은 조국을 반역한 인간추물들을 동원하여 반공화국《인권》모략을 위한 날조품 들을 연방 계렬생산해내고있다.

못된 마음을 품은자들이 좋은 말을 할리 만무 하지만 괴뢰정보원것들의 모략책동도수는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지난 시기 뒤에 숨어 우리 공 화국에 대한 날조된 자료들을 언론에 흘리는 식 으로 여론몰이를 하던 이 음모군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모략나발을 불어대며 악선전을 주도하고 있는것은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다.

력대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고 동쪽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것은 괴뢰정보원의 핵심업무 이다. 6. 1 5공동선언발표이후 온 삼천리를 뒤 흔드는 겨레의 통일함성에 눌리워 한동안 움츠러 들었던 정보원패거리들은 지금 현 집권자를 등대 고 제세상처럼 날치면서 《유신》독재부활과 북 남관계파괴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 앞장에 바로 남재준역도가 서있다. 남재준 으로 말하면 《유신정권》의 퇴물로서 괴뢰합동 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남조선미국 《련합사령부》 부사령판, 괴뢰륙군참모총장 등을 해먹으며 동족 대결과 북침전쟁소동의 앞장에서 기승을 부리던 악명높은 군부깡패출신이다. 청와대의 총애를 받 아 파쑈모략기구의 우두머리자리에 올라앉은 후 남재준역도는 자기 본색을 남김없이 드러내고있 다.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하는 망나니짓을 하여 북남관계에 돌이킬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 천하무뢰한도 이자이고 그 무슨 《내란음모사 건》이라는 모략극을 연출하여 진보세력에 대한 광기어린 탄압소동을 일으키고있는 파쑈교형리 도 다름아닌 이자이다. 젊어서 미쳐돌아가면 늙

어서 얌전해진다는데 남재준의 대결광기는 저승 길이 대문밖인 지금 오히려 더 심해지고있다.

남재준이 이번에 괴뢰국회무대에 곰팡내나는 모 략자료보따리를 풀어놓고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늘어놓은것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 려놓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아가는 련북통일기 운을 눌러놓으며 북남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려는데 그 흉악한 속심이 있다. 중요하게는 정보기관의 《존재감을 과시》하여 코밑에 닥친 위기를 수습 하자는 목적도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불 법적인 정치개입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킨 범 죄로 하여 야당들과 각계로부터 민주화실현을 가 로막는 악의 본산으로 규탄받고 정보원해체압박에 시달리고있는 남재준역도는 허튼 자료들을 내들고 라도 저들의 《대북정보력을 과시》하여 존재명분 을 살려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유 신》 독재자밑에서 하수인노릇을 하며 잔뼈를 굳힌 자가 기질을 드러내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모략군 들이 아무리 혀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나발을 불 어대도 그것을 곧이들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서툴게 엮어낸 날조자료들을 흔들며 우쭐렁거 리는 남재준의 꼴이야말로 정말 가판이다. 이런 산송장같은 로망군을 싸고돌며 내세우는 괴뢰집 권자도 가련하기 그지없다.

바보에게 맡긴것은 다 잃은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괴뢰집권자에게 충고하건대 이제 체면이라 도 세워보려면 남재준과 같은 제명을 다 산 늙다 리애물단지들을 차버리고 정보원을 해체하는 편 이 낫지 않겠는가. 정보원과 같은 극악한 반통일 기구를 그대로 두고 대화와 통일에 대해 운운하 는것자체가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다.

터무니없는 악담질로 북남관계를 해치면서 대 결에 환장해 날치는 남재준을 비롯한 피뢰정보원 패거리들에게 경고한다. 제아무리 실한 모가지라 도 벼린 칼날밑에서는 견디는 재간이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동족대결에 앞장서 날뛰는자들을 모조리 멸적의 조준경안에 집어넣고있다. 모략군 들은 죄악의 대가를 값비싸게 치르게 될것이다. 허 영 민

공화국을 찬양한 주민에게 징역형 선고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 면 괴뢰전주지방법원이 14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공 화국을 찬양한 주민에게 징역형 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글

을 선고하였다. 괴뢰법원당국은 그가 인터 네트에 공화국의 군사적위력

을 올렸다고 걸고들면서 《북에서 주장하는 선전, 선 동내용과 일치한다.》느니 뭐니 하며 이러한 폭거를 감 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핵전쟁위

최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하지만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 된 엄중한 사태는 무분별한 군사적도발, 핵 공갈로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장본 인은 미국과 그와 야합한 괴뢰호전팡들이 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조선동해와 남해에서 벌어진 미국, 일본, 남조선련합해상훈련에 참가하였던 미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 호가 제 소굴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조선 서해에 진입하였다. 《죠지 워싱톤》 호가 조선서해에 들어온것은 여러차례이지만 조 선동해와 남해에 이어 서해에 진입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조선에서는 그 무슨 《도발대 비》의 간판밑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각종 전쟁연습들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어 내외의 심각한 우 려와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이런 속에 《뗘 다니는 군사기지》. 《전쟁괴물》로 불리우 는 미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가 조 선동해와 남해, 서해를 제 집안방 드나들듯 이 싸돌아다니는것은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 협하면서 북침핵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모험적인 책동이 이미 한 계선을 넘어서고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죠 지 워싱톤》호의 조선서해진입이 모험적인 북침핵선제공격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 의 실효성검증과 보충완성을 위한것이라는

수 《북핵대응》에 대해 떠벌이며 《맞춤형 억제전략》문서에 맞도장을 누른것은 우리 에 대한 침략적인 핵선제공격기도를 공식화 한것이나 다름없다. 얼마전에 벌어진 미국 과 괴뢰들의 련합해상훈련에서도 《맞춤형 억제전략》이 적용되였다. 미제침략군의 핵 타격무력의 중추를 이루는 핵항공모함이 조 선동해와 남해에 이어 최대열점지역인 서해 에까지 들어와 《맞춤형억제전략》을 시험 하며 북침전쟁연습의 굉음을 요란히 울린것 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남조선피뢰들이 미 국의 핵항공모함을 조선반도수역에서 미친 듯이 돌아치게 하며 핵선제타격훈련에 열을 올린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군사적도 발이며 쌍방간의 충돌을 야기시켜 조선반도 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물집

한 고의적인 책동이다. 북남관계가 다시금 위기에 처하고 이로 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괴뢰집권세력이 저들의 대결 소동이 빚어낸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고 리성적으로 처신해야 할 때이 다. 그러나 괴뢰호전광들은 도리여 그 무슨 《위협》과 《도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 에 외세와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면 서 전례없는 핵전쟁광기를 부리고있다. 지 난 시기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자칫하면 핵 전쟁으로까지 번져질수 있는 위험한 불장 난들이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저들의 반인민 적악정이 몰아온 일대 사회적혼란과 파국 적사태로 최악의 통치위기에 빠진 괴뢰패 데 있다. 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그 무 당이 군사적도발과 긴장격화책동에서 출로

를 찾고있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핵전쟁의 대명사와도 같은 미제침략군의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가 우리의 주변을 검질기게 맴돌며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있는 오늘의 위기일발의 사 태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도발자, 리 성잃은 호전팡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명백히 고발하고있다.

조선반도에 핵타격수단들을 끊임없이 투 입하며 북침핵전쟁도발소동에 미쳐날뛰는자 들이 그 누구의 《핵포기》에 대해 떠들어 대고있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날갓도의 궤변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조선반도의 비 핵화를 진실로 바란다면 우리 공화국에 대 지속적인 핵위협부터 겉어치워야 한다.

내외호전광들의 북침핵위협소동이 극도 에 달하고있는 지금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 제력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 와 안정을 수호하는 믿음직한 방패로 되고

평화를 가장 철저히 지키는 방도는 전쟁 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는것이다. 미국 과 괴뢰들이 어리석게도 핵저략폭격기와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타격수단들을 남조선 과 그 주변일대에 계속 들이밀 경우 그곳 은 내외호전광들의 거대한 화장터로 변하 게 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군사적위협과 도 발로 차례질것은 수치스러운 참패와 죽음 뿐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하다.

해

괴뢰보수패당이 인민들의 의 사와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반 역정책을 강압적으로 실시하여 여론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밀양송전탑공사재개문제가 커 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 는 사실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 할수 있다.

지난 5일 남조선의 서울역광 장에서 열린 제 1 4 차 《정보원 대선개입규탄 범국민초불대 회》에서는 밀양의 한 농민부부 가 당국의 송전탑공사강행으로 하여 당하는 자기들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 고발하였는데 이것 은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분노를 자아냈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농민부부는 최근 당국이 지역주 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 고 무지막지하게 공사를 내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투쟁에 합세해줄것을 호소하였다. 그들 의 호소는 참가자들의 일치한 지지공감을 받았다.

폭로된것처럼 괴뢰집권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민중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간판을 내들고 민심을 유혹하였다. 그 러나 현실은 과연 어떤가. 남조 다. 이 과정에 어떤 주민은 자살 선의 각지에서 터져나오는 괴 뢰당국에 대한 절규와 원성은 욱 격분한 주민들은 《경찰을 보수패당이 근로인민대중의 자

주적권리와 의사를 무참히 짓 밟으면서 사회를 가난한 사람 들이 더는 살수 없는 인간생지 옥으로 만들고있다는것을 립증 해주고있다. 특히 괴뢰패당은 당국의 반역적악정에 항거하여 투쟁에 나선 무고한 인민들을 마구 탄압하고있으며 그들을 삶의 막바지, 죽음의 벼랑끝으 로 내몰고있다. 얼마전에도 괴 뢰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지켜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제주도의 강정마을주민들을 경찰무력까 지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

하였다.

밀양송전탑공사재개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동안 즘즘해졌 던 밀양송전탑공사문제는 얼마 전 권력을 등에 업은 전력공사 측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릅 쓰고 일방적으로 작업을 재개하 면서 또다시 제기되고있다. 밀 양송전탑공사를 반대하는 이곳 주민들의 투쟁은 이미 지난 5 월에도 벌어졌었다. 당시 주민 들은 자기들의 생명선과도 같은 과수원과 논밭 한가운데 송전탑 을 세우려는 《정부》와 공사측 을 반대하여 항의투쟁을 벌리였 까지 시도하였다. 이로 하여 더 풀어놓고 사람을 개처럼 짓밟는

것이 〈정부〉인가?》, 《〈정 부〉는 〈행복시대〉를 열겠다 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단죄 하면서 그래도 공사를 강행하겠 으면 《여기에 우리를 묻고 하 라.》며 필사적으로 싸웠다.하 지만 괴뢰당국은 공사현장의 《질서유지》를 운운하며 수많 은 전투경찰까지 동원하여 무고 한 인민들을 마구 탄압하였다. 이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상 당하거나 실신하였다. 이런 눈 물겨운 투쟁으로 하여 한동안 잠잠해졌던 밀양송전탑공사문 제가 저들의 기도를 한사코 실

> 처사로 하여 또다시 터져나온것 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밀양송전탑 공사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 며 투쟁을 벌리고 경찰깡패들과 피흘리며 대치하고있다고 한다.

현하려는 괴뢰패당의 반인민적

밀양송전탑공사재개를 반대 하는 주민들의 투쟁은 각계의 지지를 받고있다. 얼마전 민주 당 대표는 민심은 알려고도 하 지 않는 당국의 《불통정치》가 밀양주민에 대한 폭압으로 이어 지고있다고 단죄하면서 방대한 경찰무력을 내몰아 무고한 인민 들을 탄압하는 집권세력을 규탄 하였다. 지난 10월 8일 밀양

정치적모략의

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기자회 견을 열고 지역주민들과는 아무 런 토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 사를 강행하는 당국을 강력히 단죄하였다. 한편 밀양지역 주 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각계 시민단체들은 《외부세력의 개 입》이니 뭐니 하고 여론을 오 도하는 보수언론들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종교계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도 당국은 밀양송전탑건설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종교단체 사무총장은 밀양송전 탑건설반대는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요구라고 하면서 민중을 업신여기며 공사를 강행하는것 은 민주주의를 파피하는 행위라

고 단죄하였다.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폭력 으로 짓밟고 그들의 불행과 고 통을 증대시키는 반인민적정치 는 반드시 항거에 부딪치기마련 이다.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밀양 송전탑공사는 괴뢰보수패당의 반인민적정체를 낱낱이 고발하 고있으며 인민들이 생존권을 지 키고 자주적인 삶을 누리자면 그 것을 말살하는 반역정치를 끝장 내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굴함없이 벌려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복은 희

로 씨 야 2 1 세 기 관 현 악 단 전 쟁 승 리 기 념 관 조국해방 참 관

수석지휘자가 인솔하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18일 조국 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 였다.

손님들은 전승열병식광장에 서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인 사를 드리였다. 전 승기 념 탑 《승리》 상앞에 꽃다발들을 진정 하고 그들은 영 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숭고 한 경의를 표시 하였다.

그들은 탁월한 군사적예지와 전 략전술로 조국수 호와 반제투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불멸의 령도 업적과 조국해방

인민의 열렬한 조국애와 영웅적 투쟁정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 서 여러 관들을 주의깊게 돌아 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는 감상록에 조국 전람관을 참관하였다.

빠벨 오브쌴니꼬브 단장 겸 전쟁시기에 발휘된 우리 군대와 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세계인 민들에게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위 대한 전승업적을 자랑스럽게 보 여주는 곳이라고 썼다.

이에 앞서 손님들은 국제친선



총 련 체 육 일 군 대 표 단

는 총련체육일군대표단이 18 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 런합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 였다. 김로현 재일본조선인체육

쌈리 플리안방창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 는 세계보건기구대표단이 18일 평양을 떠나갔다.

세계보건기구대표단이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가 전송

【조선중앙통신】

답화록소동은 불순한

최근 괴뢰보수패당이 북남 수뇌상봉담화록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오면서 남조선에서 정치 적혼란과 여야간의 갈등이 극도 에 달하고있다.

원래 북남수뇌상봉담화록문 제는 보수패당이 지난 《대통 령선거》때에 야당후보를 내 리깎고 저들에게 유리한 《선 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의 북남수뇌상봉담 화록에 이전 《대통령》 로무 현의 《북방한계선포기》발언 이 들어있다고 떠들면서 터져 나왔다. 그후 정보기관을 동원 한 정치모략으로 《정권》을 비법적으로 강탈한 범죄행위 가 드러나 위기에 몰린 《새누 리당》은 정보원패거리들로 하여금 전 《대통령》의 북남 수뇌상봉발언들중에서 《심 각》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을 조립하고 지어 없는 말까지 지어내여 발취록이라는것을 조작하게 하였으며 그것을 두 차례에 걸쳐 넘겨받아 민주당 의 특정인물들을 《종북세 력》으로 몰아대는 모략소동 을 발광적으로 벌리였다. 그러 던 끝에 지난 6월 괴뢰정보원 장 남재준을 시켜 담화록전문 을 서슴없이 공개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는 담화 록공개사태는 현 집권세력과

정보원의 공모결탁의 산물이

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러 한 사실은 괴뢰집권세력이 북 남수뇌상봉담화록문제를 통치 위기를 수습하고 진보민주세 력을 《종북》으로 몰아 말살 하는데 악용하기 위해 얼마나 비렬하게 책동해왔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그 것을 위기수습에 써먹는 괴뢰 보수패당의 악습은 또다시 반 복되고있다. 현 괴뢰집권세력 이 《정보원대선개입사건》 과 《대통령선거》 공약의 페기 등으로 인민들의 강력한 규탄 을 받고 극도의 통치위기에 빠 져있는 속에 얼마전 괴뢰검찰 이 로무현《정권》이 지난 2007년 북남수뇌상봉담화 록초안을 《정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채 삭제하였다 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때를 만난듯이 담화록문제를 다시 금 요란하게 들고나오고있다. 그들은 《사초페기》라느니, 《북방한계선포기》발언을 《고의적으로 삭제》하였을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법석 고

아대고있다. 하지만 많은 인사들은 이전 《대통령》이 담화록의 페기를 시도했다면 정보원에 보관한 담 화록은 왜 페기하지 않았겠는가 고 하면서 《새누리당》의 주장

에 공감하지 않고있다. 그런가 하면 담화록작성관계자들은 문 서삭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검찰의 수사결과자체를 부인하 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2007 년 당시의 북남수뇌회담과 관련 하여 여야모두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구태여 담화록 의 내용을 숨길 필요가 있었겠 는가고 하면서 괴뢰검찰과 《새 누리당》의 주장에 의혹의 눈길 을 보내고있다.

검찰수사결과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각계의 의혹이 날로 커지자 바빠난것은 《새누 리당》 패거리들이다. 검찰을 내 세워 반《정부》투쟁기운을 가 라앉히고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던 저들의 기도가 수포 로 돌아갈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보수패당은 그 무슨 《론난종식》을 운운하며 정보 원에 보관된 북남수뇌상봉음성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망발까 지 늘어놓았다. 《새누리당》 패 거리들은 《최후수단으로 공개 가 불가피》하다느니, 《필요하 면 음성자료를 청취해 그 내용 을 확인》하겠다느니 하면서 미 친듯이 날뛰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 리당》의 주장이 《외교관계에 서 최악의 수치로 될뿐아니라 남북관계에 돌이킬수 없는 악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경고하 면서 음성자료공개를 단호히 동안 〈기초년금〉 공약파기, 측

난 《대통령선거》당시 《새누 리당》에 의해 담화록이 불법 적으로 루출된 사실을 외면하 고있는데 대해 문제시하면서 그것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들 이댔다. 이로 하여 북남수뇌상 봉음성자료공개를 둘러싼 여야 의 대립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 고 여론의 강력한 비난이 터져 나오자 《새누리당》 패거리들 은 역풍을 맞을것을 우려하면 서 주춤하는 자세를 보이고있 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흉심을

버리지 않고 음성자료공개를 위한 기회만을 엿보고있다.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과 관련 한 남조선에서의 현 사태는 괴 뢰보수패당이 날로 심각해지는 집권위기를 가시고 반《정부》 민심을 가라앉히며 다가오는 보 충《선거》를 유리하게 치르기 위해 검찰을 내세워 확인되지도 않은 자료를 수사결과로 둔갑시 켜 발표하게 하고 그것을 적극 여론화하며 나중에는 음성자료 공개소동까지 벌려놓았다는것 을 보여주고있다. 한마디로 말 하여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태 는 또 한차례의 《종북》소동으 로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 고 진보민주세력을 깡그리 말살 하기 위한 괴뢰패당의 음흉한 모략책동의 산물이다. 남조선의

한 언론이 《담화록사태에는 그

반대해나섰다. 특히 검찰이 지 근들의 련이은 사퇴 등으로 궁 지에 몰린 분위기를 음성자료공 개를 통해 돌려보겠다는 집권세 력의 의도가 담긴것으로 보인 다.》고 폭로한 사실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괴뢰패당이 북남수뇌상봉담화 록을 공개하는 망동을 부린데 이어 나중에는 음성자료공개까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려들고 북남판 계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는 사실이다. 괴뢰보 수패당이 또다시 들고나온 북남 수뇌상봉담화록문제는 력사적 인 북남선언들을 악랄하게 반대 하면서 북남관계파괴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반통일역적들의 추 악한 몰골을 낱낱이 드러내보여 주고있다.

지금 해내외의 우리 겨레는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 시키면서 북남수뇌상봉의 거대 한 의의와 민족사적업적마저 저 들의 더러운 당리당략과 정쟁, 대결계책실현에 악용하는 괴뢰 보수패당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괴뢰패당이 북남수뇌상봉담 화록문제를 계속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써먹으면서 북남대결을 조장격화시킨다면 그것은 제손 으로 제눈을 찌르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본사기자 장윤 남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여러 나라 정당, 단체대표단과 인사들 축하방문 우리 나라 대표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되신 16돐과 당창건 68돐에 즈 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대 표단과 인사들이 4일부터 10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를 축하방문하 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대원수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먄마련맹련대성발전 당.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적도기네민주당 대표단과 로씨 야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 위원회 제1비서일행,네팔공산 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일행,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선군정치연 구소조 위원장,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서기 장은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먄 마 런 맹 런 대 성 발 전 당 양굔지역위원회 집행위원은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 이끌어오신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고 격찬하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

한 령도따라 조선로동당과 인민 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 업을 반드시 실현할것이라고 하 면서 그는 두 당사이의 친선관 계가 앞으로 보다 강화발전되리 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소장 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 하시여 원쑤들의 온갖 책동으로 부터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신다, 또한 나라 의 이르는 곳마다에 대기념비적 창조물들과 인민의 문화휴양지 들을 일떠세우시고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고계신다고 칭송

여러 나라 정당과 각계 인사들이

우리 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와 꽃 다 발 을 보 내 여 왔 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축하 하여 여러 나라 정당과 각계 인 사들이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 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대원수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라오스인민혁명당 대 외관계위원회, 말레이시아중국 인당과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대외 관계위원회 위원장인 정부 부수 상 겸 외무상,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대외관 계위원회 부위원장인 외무성 부 상,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 회 위원인 라오스최고인민재판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 하여 캄보쟈, 몽골, 도이췰란 드, 우간다에서 8일 집회, 좌담 회, 영화감상회 등 경축행사들 이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캄보쟈인민당 대외관계위원 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

캄보쟈인민당은 조선로동당 창건 68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김일성대원수각하께서는 나 라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조선로 동당을 창건하심으로써 당건설 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정일대원수각하는 조선 로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 화발전시키신 위대한분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 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캄보쟈인민당과 조선로동당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

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할것이다. 몽골 다르한 올도 김정일유치원 원장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국가나 나라들의 그루빠라 할

지라도 남에게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는 식으로는 국제문제

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똑똑

히 말해주고있다고 밝히고 그

사업유한공사 총사장을 비롯한 정당과 각계 인사들이 보내여온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한편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은 우리 나라 대사관에 꽃다발 을 보내여왔다.

사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고있기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 속에서도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

조선로동당의 68년력사는 승리의 력사, 어머니당의 자랑 스러운 력사이다.

김정은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 민이 앞으로도 승리만을 떨칠것 이라고 확신한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 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어째보

동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 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주체사상연구소조가 2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 나게 계승해나가시는 조선 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새로운 기적과 혁신 의 력사를 창조하고있는 때에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맞이하

소 소장, 중국 홍콩의 금려판광 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으나 심혈을 바치고계신다. 결코 굴복시키지 못할것이다.

>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 로동당이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 건히 수호하고있는것은 진보적 인류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조선이 핵억제력을 보유하지 못했더라면 제국주의자들은 조 선을 침략하였을것이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 한다.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 행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모신 조선로동당의 미래 는 창창하다,김정일각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강성국가로 될것 이다고 확언하였다.

몽골,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성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조선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혁명의 참모부로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령도하여 왔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결정을 지지

그들의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그것이 연기되여야 한다고 하면

서 이러한 질서가 세계 모든 나

그는 임기중에 있는 지도자들

조선로동당은 현대수정주의

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 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적대세력들의 반사회주의책동 을 짓부시며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반제반미투쟁 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온 세계의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 하여 인디아, 도이췰란드신문들 이 특집하였다.

인디아신문들은 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문헌 을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68 돐에 즈음하여》라는 표제밑에 여러 제목의 글들을 게재하 였다.

《뉴델리 타임스》는 《조선 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이 김정일령도자를 영원한 총비서 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결코 상징적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이의 사상과 로선이 우리 당 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 있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

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로 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은 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뚜렷이 실증되였다.

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 적인류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위에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 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 하고있다.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국방력 을 백방으로 강화하신데 기초하 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구상 을 펼치시였다.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최후승 리를 향하여 총진군하는 조선로동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그이의 사상 리론들은 절대불변의 진리로, 영원 한 승리의 기치로 되고있다.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총진군 을 이끌어나가는 백전백승의 조 선로동당과 더불어 영생하신다. 《패션 인디아》는 《어머니당의 위대한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 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당으로 불리우고있다. 어머니당의 위대한 령도자는 김정은제1비서이시다.

인민사랑은 그이의 모든 사색 펼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 신문은 강조하였다. 최상의 목표로 되고있다.

김정은제1비서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여기신다.

그이께서 베푸시는 인민사랑 의 화폭은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끝없이 펼쳐지고있다.

조선인민은 김정은제1비서의 사랑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갈 신념에 넘쳐있다. 김정은제1비서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으로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다.

도이췰란드신문 《로테 파네》 10월호는 《조선로동당창건기념 일》이라는 제목으로 1945년 10월 10일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이 창건된데 대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사회주의길 로 꿋꿋이 전진해온데 대하여

전하였다. 신문은 조선로동당 제 4차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강성국가 대표자회가 위대한 장군님을 당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실것 을 결정한데 대해 서술하고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은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남기신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로선을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령도자께서 계시여 조선 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그이께서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라고

2012년 가을부터 2013년

가을까지 전력생산량이 그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대되

브 라 질 에 서

브라질에서 외부의 침입으로

부터 나라의 정보통신체계를 보

호하기 위해 국내산 보안기술을

암호화된 이 보안체계는 국내

정보통신망들에 리용될것이며

정부와 주요경제부문들의 정보

통신체계들을 보호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에 폭로된

도입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에 대해 전하였다.

13일 이 나라 파르스통신이

본사기자

습근평주석 군중과의 사업방법을 혁신할데 대해 강조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최근 군 거하는 《풍교경험》을 창조하고 중과의 사업방법을 혁신할데 대

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그는 지시에서 50년전 절강 성 풍교의 간부들이 군중에 의 형세변화에 맞게 그 내용을 더 욱 풍부히 하였다고 밝혔다.

가니스탄, 특히 이라크의 경우

를 놓고볼 때 일방적으로 무력

을 휘두르는 행위는 지역뿐아니

라 세계적범위에서 불안정을 급

격히 고조시키는 결과만을 빚어

그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들

인식하고 훌륭한 작품을 발양하 며 시대적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방법을 혁신함으로써 당의 군중로선을 잘 견지하고 관철할 이 《풍교경험》의 의의를 깊이 데 대해 강조하였다.

일 방 적 인 로씨야외무상 쎄르게이 라브 로브가 15일 한 국제관계연구 소에서 연설하면서 일방적인 힘의 사용시도에 대해 경고하

그는 국제문제해결에서 힘의 사용이 사람들의 희생을 줄인다 는것을 증명한 사람은 단 한명 도 없다고 하면서 리비아, 아프

낸다는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는 분쟁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인민들의 문화전통 최근 몇해동안에 벌어진 과 자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사태들은 그 어떤 개별적인

국 제네바주재 꾸바상임대표가 최근 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 자 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

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50여년동안 지속되는 미국의 봉쇄로 지금까지 꾸바가 입은 피해액이 대략 1조 3 200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느코사자나 들라미니 주마가

12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

바바에서 진행된 아프리카동맹

수뇌자회의 특별회의에서 연설

하면서 대륙의 사법체계를 강화

할것을 호소하였다.

쇄 책

억US\$로 추산되고있다고 폭로 고 그는 말하였다.

력을 가하여 꾸바의 보건부문어 대한 지원계획을 가로막았으며 이것은 에이즈방지, 암치료 등

사용시도에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봉쇄 미국은 특히 국제기구들에 압 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꾸바정 부는 나라의 모든 주민들에게 무상치료를 보장할수 있는 훌 륭한 보건제도를 세웠다고 강

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폭발장소로부터 반경 1km안에

있는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

강조하였다.

사업에 부정적영향을 미치였다 조하였다. 폭 발 사 고 윁남의 푸 토주에 있는 폭죽

였다.

화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성과 화해, 사람들의 권리와 존 엄을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요구 국제형사재판소가 아프리카 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

대륙의 사법체계강화를 호소 고 폭로하면서 그는 이에 대처 공장에서 12일 폭발사고가 일 하여 지역자체의 사법체계를 강 어났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형사재 판소가 분쟁문제해결에서 공정

인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있다 는 강조하였다.

일본의 새로운 부장장비개발책동 일본방위성이 9일 그 무슨 《외딴섬방위》의 구실밀에 륙상 《자위대》에 배비하게 될 기동전 투차의 시제품을 공개하는 놀음 을 벌려놓았다.

이러한 놀음은 일본이 시대착 오적인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 하기 위해 새로운 무장장비개발 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책동 비난

팔레스티나의 한 고위관리 가 9일 이스라엘의 유태인정

이스라엘당국이 최근 동부꾸 드스에 58채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되고있다.

13일 동부지역에서 아프가니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착촌확장책동을 신랄히 비난

이라고 단죄하였다.

하였다.

유태인정착촌확장놀음이 바 로 평화협정체결을 가로막는 기 본장애물이라고 하면서 그는 국 제공동체가 부당한 계획을 철회 하고 정착촌건설을 중지하도록 이스라엘당국에 압력을 가할것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군병사 즉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나라 주 스탄군복을 입은 한 남성이

황천객이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둔 나토군에 대한 공격이 계속 쏜 총에 맞아 나토군병사 1명이

아 프 리 카 동 맹 의 남아프리카대통령 쟈코브 게 에 대한 재판이 제기되는 경우

들레이흘레키사 주마가 14일 한 회견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가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을 재판하는것을 금지시킬데 판 한 아프리카동맹의 결정을 지 지하였다.

라들에 적용되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나라의 경제발전노력에 대해 언급 브라질대통령 딜마 바나 로우 쎄프가 14일 한 행사에서 연설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 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언

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나라의 경제

발전과 혁신을 적극 추동하 는데 주되는 힘을 넣고있다 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민족화폐를 보호하

력을 확대할수 있는 기술적

고 인플레률을 계속 낮추기 위 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 한 조치를 취하고있다고 그는 고있으며 특히 공업의 경쟁 밝혔다.

중요성 강조 무 력 현 대 화 의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 타가 14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 것이 가지는

급하였다. 적들을 제압할수 있는 효과적

어야 국가안전을 담보할수 있다 고 밝히고 그는 정부가 무장 및 면서 나라의 무력을 현대화하는 안전장비들을 현대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와 지역의

이고 우수한 무장장비들을 갖추 국제형사재판소의 불공정성 규탄

르완다대통령 뽈 까가메가 15 일 끼갈리에서 가진 한 회견에 서 국제형사재판소의 불공정성

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국제적정의를 대변한다 고 하는 이 재판소가 일부 나라 들의 정치적문제들에 끼여들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등

평화보장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 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사법처리에서 불공정성을 드러 내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이 재판소가 진정으로 국제법

을 실행하기 위해 나온것이라면

모든 나라들에 공정한 법을 적

용해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 【조선중앙통신】

---- 국방격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

(生뽈)대륙간탄도미싸일의 시험

미싸일은 까자흐스딴의 싸

리-샤간사격장에 있는 가상

이번 시험발사의 목적은 사용

기간이 연장된 이 미싸일의 기

술적성능을 확인하는데 있었다

인 디 아 에 서

는 시험장에서 핵단두를 탑재할

인디아가 7일 오리싸주에 있

목표를 정확히 소멸하였다.

발사를 진행하였다.

로 씨 야 에 서 집단안전조약기구 합동평화 유지훈련 《공고한 형제적우의-2013》이 11일 로씨야의 첼랴 빈스크주 체바르꿀사격장에서

끝났다. 중부군판구사령판은 훈련 정형을 총화하면서 6개 나라 의 평화유지군인들이 맡은 임 무들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는 평화유지군 부대들의 지휘능력과 전투준비 를 더욱 완성하며 여러 나라 구 분대들사이의 협동작전수준을 높일데 대한 과제들이 성과적으

로 수행되였다고 한다. * 로씨야전략로케트군이 10일 아스뜨라한주에 있는 까뿌스찐

수 있는 국산제《프리트비-2》 미싸일을 성과적으로 시험발사 하였다. 사거리가 350km이고

있는 이 미싸일은 이미 인디아

륙군에 취역하였다 한다. 이 란 에 서

1 OOOkg의 핵단두를 탑재할수 미국과 서방의 인터네트를 통한 정탐행위를 막기 위한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였다.

14일 브라질정부가 이에



메 히 꼬 에 서

조류독감 발생 오스트랄리아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 있는 한 닭공장 에서 최근 조류독감이 발생

하였다. 15일 이 공장에서 생산된 40만알의 닭알을 검사한 결 과 그것들이 H7형조류독감 비루스에 감염되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공장의 닭과 닭알들을 처분하 는 조치가 취해졌다.

【조선중앙통신】

오늘 일본에서 군국주의자들이 활 개치고있다. 일본은 서방세계에서 미 국 다음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 는 나라로 되였다. 일본은 해마다 방 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여 《자위대》를 현대적인 군사장비, 첨단군사기술로 무장시켜왔다. 일본《자위대》는 최신 전쟁장비를 갖춘 1 0 여개의 사단병 력에 현대적인 함선들과 최신전투기 들을 보유한 기동타격무력으로 자라 났다. 일본은 핵무장화야망을 실현

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은 미국의 뒤받 침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일본군국 주의는 패망후 오늘까지 미국의 지지, 비호밑에 재생,재무장의 길로 줄달음 쳐왔다.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은 일 본에 있어서 죽어가던 경제를 부활시 키고 재침의 발톱을 벼릴수 있게 한 절 호의 기회로 되였다. 일본은 자기 땅을 통채로 미제의 병기창, 보급기지로 전 변시켰다.

하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고

미제는 조선전쟁에 필요한 수많은 무기와 군수품을 조선반도와 가까운 일본에서 보장받기 위하여 대량적인 《특수주문》을 하였다. 그 《특수주문》 들은 전적으로 일본독점체들에 돌려 졌다. 일본의 군수공장들에서는 화물 자동차, 포, 땅크, 비행기, 탄약, 통신 기자재, 연료용탕크 지어는 위장망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전쟁물자들이 대 대적으로 쏟아져나왔다. 조선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의 전시물자생 산은 더욱 늘어났다. 일제패망과 함 께 침체위기를 겪고있던 일본군수독 점체들은 조선전쟁과 때를 같이하여 급기야 부활되면서 황금소나기를 맞

게 되였다. 당시 세상사람들을 경악하게 한것 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교수형을 언도받고 처형된 전범자 도죠의 아 들이 맥아더의 특별신임을 받으면서 일본의 병기부문의 최고책임자로 맹 활약한것이다. 일본의 병기창으로 알려진 미쯔비시중공업에 대한 내막 을 밝힌 자료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 여있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대통령자리 에 올라앉은 아이젠하워는 국회에서 한 첫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는 전쟁 경제이며 미국의 번영은 전쟁번영이 라고 떠벌인바 있다. 결국 미국은 이 러한 전쟁경제를 가동시키고 전쟁번 영을 이룩하기 위해 조선전쟁을 도발 하였고 그 전쟁을 치르는데 드는 부 담을 줄이려고 패망한 일본을 재생재

오늘 미국에 의해 되살아난 일본

이라는 군국주의독사는 해외침략의

무장시켰다.

협력하고있다.

길로 내닫기 위해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제 2차 세계 대전후 반세기이상에 걸쳐 내외의 압 력이 두려워 《자위대》를 해외군사작 전에 내몰지 못하였다. 하지만 새 세 기에 들어와 미국에서 9.11사건이 터지자 때를 만난듯이 《대미지원》의 구실밑에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조 작하여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인디 아양에로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이 지 역에 《자위대》함대를 파견하여 《반테 로전》의 명분밑에 다른 나라의 자주 권을 마구 유린침해하는 미군에 적극

해외침략의 서막이다. 이제는 일본의 침략무력이 마음먹은대로 그 어데나 진출하여 군사작전을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미국의 지지, 비호는 일본의 해외침 략야망을 더욱 부채질해주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반동적대아시아전략수행에 일본을 깊숙이 끌어들여 리용하려 하 고있다. 당면하여 미국은 일본을 저들 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실현의 돌격 대로 내몰려 하고있다. 한편 일본은 미 국의 《반테로전쟁》에 가담하여 상전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군지원》이 라는 구실밑에 《자위대》를 해외에 전면출동시킬수 있게 되였다. 《자위 대》의 군사작전범위는 일본주변으 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 되였으며 군사전략은 《전수방위》전 략으로부터 선제공격전략으로 완전

《일미방위협력지침》관련법들을 제 정함으로써 교전권, 참전권을 부활시 킨 일본은 재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거치장스럽게 여기던 제도적장치들 을 현속적으로 제거해버렸다. 일본은 《자위대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위 대》무력이 해외군사활동을 벌릴수 있 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무기사용을 허 용하였다. 전시동원체제, 파쑈체제를 수립하고 재침전쟁에 뛰여들기 위한 《유사시》법정비가 더욱 다그쳐지고 있다.

히 전환되였다.

일본반동들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정규적인 무력을 가지지

반미시위

매장시키고 일본을 전쟁국가로 합법 화하여 해외침략을 뻐젓이 감행하려 고 발광하는것은 그들의 군국주의야 망실현책동이 얼마나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있다. 《평화》를 부르짖으며 무력을 동 원하여 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전쟁 을 일으키는것은 침략세력들이 쓰 는 상투적수법이다. 과거 일본제국 주의가 바로 그러하였다. 지난날 일 제는 만주를 침략할 때 《자위권의 발동》을 구실로 삼았고 중일전쟁을 도발할 때는 《응징》이니 하는따위 의 론리를 내세웠다. 일제는 《동양 평화》를 제창하며 대륙침략전쟁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오늘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재해방지》,《유엔평화유지활동협 력》,《반테로전지원》등의 구실을 내들고 기회를 엿보다가 다른 나라 들에 불의적인 무력공격을 가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일본의 해외팽창 야망을 적극 부추기고있다.이에 힘을 얻은 일본군국주의가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세계를 넘겨다보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비극은 기른 개 발 뒤축을 문다는 격언을 망각한데 있 다. 지금도 일본의 일부 계층은 미 국이 자기 나라 땅에 원자탄을 떨 군것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어느 때든지 이에 대하여 《꼭 계산해야 한다. 》고 선동하고있다. 그들은 히 로시마원자탄피해상황을 찍은 필림 까지 입수하여 기록영화를 만들어 내돌리도록 하고있다. 미국은 《핵우

산》등으로 하수인인 일본을 자기 손탁에 얽어매려 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묵은 한을 품고있는 간 특한 일본이 어느때 가서는 복수하 기 위해 피를 물고 날튈것은 불보 듯 명백하다.

군기지를 불바다로 만든 사실은 잘 알 려져있다. 앞으로 일본이 진주만기습 과 같은것을 단행하지 않으리라는 담 보는 없다. 패전후 반세기이상 내들었던 《평화 국가》의 위장을 완전히 집어던지고 전 쟁국가, 세계정복을 추구하는 호전적 지배주의세력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

일제가 1941년 12월 불의적이

고 맹렬한 공격으로 미국의 진주만해

놓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 창책동은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 할수 있다. 오랜 기간 미국과 긴밀히 결탁하 여 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가 본격 적으로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는 경 우 아시아와 인류에게 어떤 불행이

작할수 있다.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을 저지파탄시 키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와 아시아, 세 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문명발전을

들씌워질것인가는 어렵지 않게 짐

담보할수 없다. 일본반동들의 위험천만한 해외침략 책동에 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 호국가들과 인민들이 경각성을 높여야

또다시 아시아의 《맹주》가 되여 《대 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 일 본군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절대 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현

이것은 전쟁참가와 다름없으며 ¬─311638 (정기간행물번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전 화: 교환 3 7 3 − 2 3 1 2 , 편집국 3 7 3 − 1 3 2 8 , 론설원실 3 7 3 − 5 4 2 8 , 당력사교양부 3 7 3 − 5 5 2 8 , 당생활부 3 7 0 − 4 5 2 8 , 사회주의교양부 3 7 2 − 3 5 2 8 , 사회주의교양부 3 7 2 − 4 5 2 8 , 사회주의교양부 3 7 2 − 4 5 2 8 , 사회주의교양부 3 7 2 − 4 3 2 8 , 조국통일부 3 7 2 − 4 8 8 2 , 국제부 3 7 3 − 4 7 2 8 , 사진보도부 3 7 3 − 0 7 1 2 , 특파기자부 3 7 2 − 4 3 2 8 .